

조선시대 충청도 馬梁鎮 연구

서 태 원 *

- 1. 머리말
- 2. 마량진의 설치와 변천
- 3. 마량진의 구조
 - 1) 인적 구조
 - 2) 물적 구조
- 4. 마량진의 기능
 - 1) 바다 방어
 - 2) 조세선 호송
-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 충청도 마량진은 종3품 水軍僉節制使鎮으로서,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존재하였다. 첨절제사진인 巨鎮 마량진은 한편으로는 節度使鎮인 主鎮 수영·감영의 지휘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萬戶鎮인 諸鎮 서천포를 통제하였다.¹⁾ 마량진은 1655년(효종 6) 鎮의 위치가 남포현에서 비인현으로 옮겨졌으며,²⁾ 바다 방어와 조세선 호송 등을 담당하다가 1895년(고종 32) 지방의 육군과

* 목원대학교 역사학과 조교수.

1) 『經國大典』 권4, 兵典 外官職 “節度使稱主鎮 節制使・僉節制使稱巨鎮 同僉節制使・萬戶・都尉稱諸鎮”；外官職 忠淸道 “正三品 水軍節度使二員 一觀察使兼，從三品，水軍僉節制使二員，所斤浦鎮・馬梁鎮；正四品 水軍虞候一員，從四品水軍萬戶三員，所斤浦鎮管唐津浦・波知島 馬梁鎮管舒川浦”

2) 『孝宗實錄』 권15, 효종 6년 11월 丁亥: 『國朝寶鑑』 권38, 효종 6년 11월.

수군이 폐지될 때 함께 폐지되었다.³⁾

지금까지 마량진에 대해서는 충청수영과 속진의 위치를 살펴보는 가운데 마량진의 설치·移設과 마량진성의 유적을 밝힌 연구와⁴⁾ 마량진이 한국 최초의 성경전래지라는 연구⁵⁾ 등이 있다. 하지만 마량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마량진을 단일 주제로 살펴보거나 구조·기능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충청도 안흥진⁶⁾·평신진⁷⁾·소근진⁸⁾ 연구에서는 설치·변천과 구조·기능은 물론이고, 안흥진의 입지환경·공간구조와 軍餉 운용 및 平薪屯의 구조와 정부·둔민의 갈등 등이 밝혀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충청도 수군 진에 대한 사례연구의 연속선상에서 마량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로 마량진의 설치와 변천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마량진의 인적 구조에 대해 마량첨사와 군병을 그리고 물적 구조에 관해 公廨·전함·재정을 살펴보며, 셋째 마량진의 기능에 대해 바다 방어와 조세선 호송 등을 통해 알아보려 한다. 그럼으로써 조선시대 충청도 수군에 대한

3) 『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7월 15일; 『日省錄』 고종 32년 7월 15일.

4) 황의천, 2007 「조선시대 충청수영과 속진의 위치에 대한 연구」『보령문화』 16, 37-50면.

5) 2003년 충남 서천군에서 열린 제1회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 고증 역사학술 세미나 및 마량진이 한국 최초 성경 전래지라는 연구에 대해서는 허호익, 2009 「마량진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비의 역사적 고증 문제」『귀클라프의 생애와 조선선교활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참고가 된다.

6) 안흥진에 대해서는 서정석, 1999 「태안 안흥진성에 대한 일고찰」『역사와 교육』 3·4; 황의천, 앞의 논문, 57-67면; 김경우, 2008 「조선후기 태안 안흥진의 설치와 성안마을의 공간구조」『역사학연구』 32; 탁태운, 2011 「조선후기 안흥진의 설치와 군향 운용」,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태원, 2013a 「조선후기 충청도 안흥진의 설치와 변천」『역사와 실학』 50; 서태원, 2013b 「조선후기 충청도 안흥진의 구조와 기능」『역사와 실학』 52 등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7) 평신진에 관해서는 황의천, 앞의 논문, 68-78면; 이은우, 2009 「평신진 성황제와 여제의 변천에 관한 연구」『서산의 문화』 21; 서태원, 2010 「조선후기 평신둔의 설치와 경영」『규장각』 37; 서태원, 2011 「조선후기 충청도 평신진 연구」『중앙사론』 34 등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8) 소근진에 대해서는 황의천, 앞의 논문, 50-57면; 서태원, 2016a 「조선시대 충청도 소근포진의 변천」『역사와 실학』 61; 서태원, 2016b 「조선후기 충청도 소근진의 구조와 기능」『사학연구』 124 등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제도사적인 이해를 피하면서, 마량진과 충청도 다른 수군 진과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해보려 한다.

2. 마량진의 설치와 변천

조선시대 마량진은 1466년(세조 12) 水軍都萬戶를 水軍僉節制使로 변경하는 관제개편에 따라 설치된 수군첨절제사진이다. 하지만 마량진의 연원은 최소한 1406년(태종 6)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하면 마량진은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진에서 수군첨절제사진으로 바뀌었는데, 1406년(태종 6) 충청우도 수군도만호가 왜적에게 租稅船을 약탈당한 일로 곤장을 맞게 된 것이⁹⁾ 확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1419년(세종 1) 馬梁浦의 船軍으로 복무하다가 왜적에게 잡혀갔던 문성기가 1436년 귀환된 것을¹⁰⁾ 통해, 마량이라는 용어는 1419년 이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충청우도 수군 鎮의 명칭과 위치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충청우도 수군 진의 명칭과 위치^[11]

진의 명칭		진의 위치
都萬戶鎮		藍浦縣 龜井
	舒川浦萬戶鎮	長巖浦
	高巒梁萬戶鎮	保寧縣西 松島浦

즉 세종대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진은 남포현 龜井에 위치하였고, 서천포만호진은 서천군 장암포에 그리고 고만량만호진은 보령현 서면 송도포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충청우도 수군도만호는 한편으로는 충청좌도 수군도만호와 함께 충청도

9) 『太宗實錄』 권14, 태종 6년 4월 辛未.

10) 『世宗實錄』 권73, 세종 18년 윤6월 乙酉.

11) 『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 권149, 忠淸道 5책 624면.

수군 최고 지휘관인 都按撫處置使의 통제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진에 소속된 서천포만호와 고만랑만호를 지휘하였다. 『대동여지도』를¹²⁾ 통해 충청우도 수군 진의 위치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조선시대 충청우도 수군 진의 위치

즉 <그림 1>의 하단 중앙에 開也召로 표기된 섬의 약간 오른 쪽 위 원 안의 네모 위에 舒川浦가 기재되었는데, 이곳이 수군만호진 서천포로 1466년(세조 12) 관제개편 이전에는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군첨절 제사진에 소속되었다. 서천포에서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원안 네모 위에 馬梁 그리고 마량 위에 都屯串이¹³⁾ 표기되었는데, 여기 마량이 1655년(효종 6) 남포

12) 『大東輿地圖』(奎 10333).

13) 都屯串은 都豆音串(『世宗實錄』 권4, 세종 1년 5월 辛亥) · 都苑串(『世宗實錄』 권4, 세종 1년 9월 戊申: 『成宗實錄』 권243, 성종 21년 8월 丁亥) 등으로도 기재되었다.

현에서 비인현으로 옮겨온 수군첨절제사진 馬梁鎮이다. 비인현 마량에서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네모 안 ⑧ 오른 쪽에 마량 그리고 위에 廣巖이 기재되었는데, 이곳 마량이 조선전기 남포현에 위치한 마량진으로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진이었다가 세조대에 수군첨절제사진이 되었다. 남포현 마량에서 해안가를 따라 올라가면 네모가 나온다. 이곳이 보령현 서면 송도포에 위치한 고만만호진으로 서천포만호진과 함께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의 통제를 받았으며, 네모 아래에 섬高巒이 그리고 네모 왼쪽에 松島의 松이 기재되었다. 이어 고만만호진에서 위로 올라가면 원안 네모 아래에 水營이 기재되었는데, 이곳이 1466년 관제개편 이전 충청도 수군의 최고 지휘관이 머무른 보령에 위치한 도안무처치사영이다.

그런데 1457년(세조 3) 고만량만호진은 보령의 도안무처치사영과 거리가 멀지 않으니 별도로 만호를 두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혁파되었다.¹⁴⁾ 그 결과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의 지휘를 받는 수군만호진은 2개에서 1개로 축소되었다. 이어 수군도 1457년 확정된 육군의 진관편성을 따라 진관조직을 갖추게 되고¹⁵⁾ 1466년 ‘수군도안무처치사를 水軍節度使로, 水軍都安撫處置使都鎮撫를 水軍虞候로, 수군도만호를 水軍僉節制使’로 변경하는 관제개편에¹⁶⁾ 따라 마량진은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진에서 수군첨절제진이 되었다.¹⁷⁾ 따라서 마량진은 수군첨절제사진인 巨鎮으로서 위로는 主鎮의 지휘를 받으면서 아래로는 諸鎮 서천포를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마량진의 移轉에 대해 살펴보자. 남포현에 위치하였던 마량진은 효종대에 비인현으로 옮겨진 것이 다음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즉 『孝宗實錄』·『國朝寶鑑』의 1655년(효종 6) 11월 기사에서 舊鎮이 藏船에 불편했기 때문에 비인현 마량진을 都島로 옮겨 설치했다고 하였고,¹⁸⁾ 『大東地志』에서는 남포현 廣巖

14) 『世祖實錄』 권6, 세조 3년 1월 辛巳.

15) 민현구, 1983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252면.

16) 『世祖實錄』 권38, 세조 12년 1월 戊午.

17) 『經國大典』 권4, 兵典 外官職: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0, 충청도 남포현 關防.

18) 『孝宗實錄』 권15, 효종 6년 11월 丁亥 “丁亥 忠清道庇仁縣馬梁鎮 移設於都島 朝廷從水使 金漢文之請舊鎮不便於藏船故也”: 『國朝寶鑑』 권38, 효종 6년 11월 “命移設庇仁縣馬梁鎮

에 있었던 마량진 구진이 藏船에 불편하여 1655년 마량진을 비인현 官門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內都屯串으로 이전했다고 서술되었다.¹⁹⁾

여기에서 공통된 내용은 마량진 구진이 藏船에 불편하여 1655년²⁰⁾ 마량진 위치를 옮겼다는 것인데, 土砂가 쌓여 항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전함의 정박처를 점점 바다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함을 감추기 곤란하여 마량진 위치를 이전했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물론 효종대에 마량진을 옮긴 것은 청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충청도 수군 鎮을 정비하는 것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그 점은 1653년 충청도 태안군 안흥성의 舊鎮을 대신하여 안흥성 건너편 섬에 新鎮을 설치하고, 1655~1656년 기존의 안흥성을 증축해 軍餉을 비축함으로써 유사시 江都를 도우려 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²¹⁾ 따라서 마량진의 전선·군병을 남포현 本鎮을 비롯하여 본진 건너편 섬인 防禦所 및 비인현 都豆音串戍에 나누어 배치하는 것보다는, 大洋으로 신속하게 진출하기 유리한 한 곳에 전함·군병을 집중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므로 마량진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마량진 舊鎮과 都島가 어느 곳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우선 『孝宗實錄』에 서술된 舊鎮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자. 『大東地志』와 『湖西邑誌』는 물론이고, 남포현 마량진은 『해동지도』에서 旧馬梁,²²⁾ 『여지도』에서 舊馬梁²³⁾으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구진은 비인현 마량진

於同縣都島 以舊鎮不便於藏船也”

19) 『大東地志』 권3, 忠清道 庶仁 鎮堡 “馬梁鎮西三十里內都屯串 孝宗六年自藍浦廣岩移設于此 以舊鎮不便於藏船故也”

20) 『湖西邑誌』에서는 마량진이 남포현에서 비인현으로 옮긴 해가 丙申년인 1656년으로 기재한 점에서 『孝宗實錄』·『大東地志』 등과 차이가 있으나, 1655년 11월 마량진이 도도로 이전하는 것이 결정된 후 실제로 시행한 것은 그 다음해였으므로 『湖西邑誌』에서는 1656년으로 기록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湖西邑誌』는 남포현에서 비인현으로 옮겨 온 마량진이 官門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고 서술한 것은 『大東地志』와 일치하였다[『湖西邑誌』 13책, 庶仁 鎮堡 馬梁(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611면), “在縣西三十里 孝宗丙申 自藍浦縣移設”]

21) 서태원, 2013a 앞의 논문, 107-121면.

22) 『해동지도』(古大4709-41) 「충청도 남포현」.

23) 『여지도』(古4709-68) 「충청도 남포현」.

과 구분하여, 남포현 마량진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孝宗實錄』의 ‘충청도 비인현 마량진을 都島로 移設했다’라는 기사에서, ‘비인현’이 ‘남포현’의 誤記가²⁴⁾ 아니라면 이 때 구진은 都島로 옮겨가기 前 비인현 어떤 곳에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비인현에서 마량진 구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곳은 비인현 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떨어진 都豆音串戍과²⁵⁾ 30리 떨어진 내도둔곶이다.

첫 번째로 도두음곶수는 도둔곶이 적이 왕래하는 핵심 노선이므로, 조선전기에 助戰所로 지정될 정도로 왜구 방어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때문에 1490년(성종 21) 남포현 마량진을 移轉하자고 했을 때 후보지로 거론된 바 있다. 즉 동지중추부사 李則이 남포현 마량진 浦口는 물이 얕아 밀물이 아니면 배가 다닐 수 없으므로 갑작스런 變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마량진 건너편 조그마한 섬에 위치한 防禦所로 진을 옮기자고 하자,²⁶⁾ 도순찰사 成健이 내려가 남포현 마량 등을 看審 한 후 ‘남포현 마량이나 비인현 도둔곶은 조수가 물러가면 육지가 되어 兵船을 띄울 수 없는 것은 똑같으니 그전대로 두는 것이 편하다’고²⁷⁾ 한 것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비인현 도둔곶은 남포현 마량처럼 조수가 물러가면 전함이 왕래할 수 없으므로 남포현 마량진을 비인현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대신 병선 1척·수군 30명이 설치된 도두음곶수에 소맹선 2척·수군 60명을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戰力を 강화하였다.

두 번째로 구진으로 여겨지는 곳은 비인현 官門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내도둔곶으로, 『大東地志』·『湖西邑誌』에서 마량진이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 이곳은 도두음곶수에 비해 서쪽으로 10리나 대양에 가까운 곳이므로, 외적의 침략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1866년(고종 3) 전라감사가 ‘비인현 마량은 항구가 좁고 바닥이 얕아 1~2척의 빈 배도 들어갈 수 없다’

24) 황의천, 앞의 논문, 43면.

2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0, 忠清道 庶仁縣 關防 都豆音串戍; 『湖西邑誌』 13책, 庶仁 關防 都豆音串戍(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 『邑誌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611면) “今廢在縣西二十里 右僉節制使分兵戍”

26) 『成宗實錄』 권243, 성종 21년 8월 丁亥.

27) 『成宗實錄』 권244, 성종 21년 9월 丁丑.

고²⁸⁾ 한 것에서, 내도둔곶도 전함이 왕래할 때 조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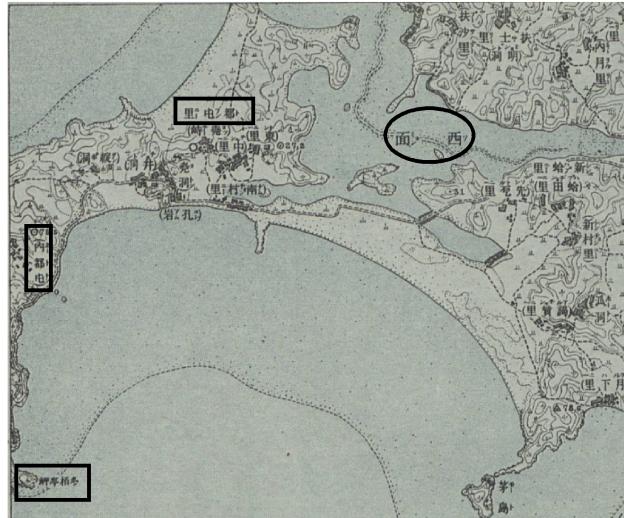
따라서 내도둔곶은 도두음곶수에 비해 신속하게 대양에 진출할 수 있으므로 1655년 남포현에서 비인현 내도둔곶으로 마량진이 옮겨왔지만, 내도둔곶도 밀물이 아닐 때에는 전함의 왕래에 문제가 있어 섬인 도도로 마량진이 이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孝宗實錄』에서 비인현 마량진을 都島로 옮겨 설치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섬으로 왕래하는 군병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마량진의 위치가 내도둔곶으로 환원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마량진이 비인현으로 옮기기 2년 전인 1653년 대양에 가까우면서 포구에 위치한 안흥성 안의 舊鎮을 대신하여 안흥성 건너편 섬에 新鎮을 설치했다가, 불편한 일이 많고 토병들도 원망하고 괴로워한다고 하여 1669년(현종 10) 안흥진이 구진으로 환원되었다. 아울러 충청좌도 수군도만호진 소속 대산포진(파지포진)도 파지도로 진을 옮겼다가 되돌아오기를 몇 차례 반복하였고,²⁹⁾ 마량진이 남포현에 있었을 때는 마량진 건너편 섬에 방어소가 설치된 바 있다. 밀물·썰물과 상관없이 외적 침략에 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포구보다 섬이 유리했으므로 鎮을 섬으로 옮기거나 본진의 전선·군병을 섬에 나누어 배치했다가, 섬으로 왕래하는 수군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鎮이 포구로 환원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海防과 백성들의 고통 중 어느 측면을 중요시할 것인가에 따라, 진의 위치가 섬에서 포구로 또는 포구에서 섬으로 변동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서천군에서 향토사를 연구하는 박수환은 1917년 測圖한 후 1918년 製판된 「舒川五萬分一地形圖」 등을 근거로 ‘도도’는 섬이 아니라 도둔리 지역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28) 『備邊司瞻錄』 고종 3년 3월 9일; 『日省錄』 고종 3년 3월 9일.

29) 서태원, 2016a 앞의 논문, 286-293면.



〈그림 2〉 「舒川五萬分一地形圖」(1918)³⁰⁾

즉 〈그림 2〉의 왼쪽 하단 직사각형 안에 ‘동백정갑’이 표기되었는데, 이곳 바로 위 해안가에 전함 선박처가 있다. 동백정갑에서 곧바로 위로 중간 쯤 올라가면 직사각형 안에 ‘내도둔’이 그리고 내도둔 오른쪽 약간 위 직사각형 안에 ‘도둔리’가 기재되었는데, 비인현 官門으로부터 도둔리는 서쪽으로 20~29리 그리고 마량진은 서쪽으로 30리에 위치하였다.³¹⁾ 따라서 마량진이 비인현으로 옮겨오기 전에는, 도둔리 범위가 비인현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20~30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 도둔리 오른 쪽 약간 아래 타원형 안에 ‘서면’이 표기되었다. 바로 도둔리 아래와 서면 쪽 바닷물이 안과 밖으로 들락거리면서 모래톱이 형성되었고, 滿潮 때에는 왕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시적으로 섬이 되므로 서면 왼쪽 도둔리 지역을 都島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둔리에는 성종대 남포현 마

30) 국사편찬위원회(종로도서관 소장 자료 디지털화), 1918 「藍浦」『한국근대지도자료: 朝鮮五萬分一地形圖(公州, 洪城, 於青島)』.

31) 『湖西邑誌』 13책, 庶仁 坊里 西面 都屯里 · 馬梁鎮(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610면).

량진의 移轉 후보지로 거론되고 실제로 마량진의 전함·군병을 나누어 주둔시켰던 도두음곳수는 물론이고, 『大東地志』에서 비인현 마량진이 설치된 곳으로 확인되는 내도둔곳도 위치하였다. 따라서 도도가 도두음곳수와 내도둔곳 등을 포함한 도둔리 지역을 의미하므로, 마량진이 설치된 특정 장소 한 곳을 지칭하기에는 도도의 범위가 너무 넓다.³²⁾

한편 마량첨사는 1865년(고종 2)부터 공충감영의 군관에서 自辟하도록 하였다.³³⁾ 이러한 변천을 경험한 마량진은 1895년 조선후기 지방의 육군·수군이 폐지될 때 함께 폐지되었다.³⁴⁾

3. 마량진의 구조

1) 인적 구조

조선시대 마량진에는 최고 지휘관인 종3품 수군첨절제사를 비롯하여 군병 등이 설치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마량첨사와 군병을 중심으로 마량진의 인적구조를 살펴보겠다.

(1) 마량첨사

먼저 조선시대 마량첨사의 왕대별 성명과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32) 현지에서는 마량진이 있었던 도도로 불만한 섬이 없으므로 답사와 사료 검토를 통해 마량진 위치문제를 재고해보라고 지적해주신 십사위원회를 비롯하여, 〈서천오만분의일지형도〉 등을 통해 도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신 박수환과 서천문화원·성경전래지기념관 관계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孝宗實錄』에 기재된 舊鎮과 都島의 명확한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는, 추가 답사 및 새로운 자료를 찾아 계속 보완하려 한다.

33) 『高宗實錄』 권2, 고종 2년 10월 丁酉: 『承政院日記』 고종 2년 10월 6일(丁酉); 『日省錄』 고종 2년 10월 6일.

34) 『高宗實錄』 권33, 고종 32년 7월 15일: 『日省錄』 고종 32년 7월 15일.

〈표 2〉 왕대별 마량첨사의 성명과 재임기간³⁵⁾

성명 수 왕대별	성명	부임 안함	재임기간				합계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모름	
중종	오순우, 김진경, 정세린						3 3
선조	최진립						1 1
광해군	송경신						1 1
인조	류시공, 양정추, 이담, 김극겸, 한종일, 이충민, 윤사성		1	1	2	3	7
효종	이시옥, 박유효			1	1		2
현종	정문성, 류흘연, 양응정, 정운기, 전기정, 남오, 박시민, 김명길		3	3	1	1	8
숙종	송상의, 이성석, 최호중, 송계상, 최두정, 이함, 방만원, 류이원, 오시량, 정재룡, 조복한, 박동현, 이진, 장준홍, 원필대, 최세기, 이지장, 신응기, 이상수, 안지복, 김원일, 박정우, 전성일, 어사충, 신행집	1	3	9	11	1	25
경종	이만표, 이세진				2		2
영조	김한옥, 김도황, 여필선, 이의각, 이상준, 김필태, 안한성, 홍보인, 변하정, 이인경, 정한언, 최정천, 이세준, 현두재, 최태룡, 조중복, 나완, 이덕립, 전유례, 김정상, 차덕로, 오도건, 서명신, 오도건 홍리기, 이춘부, 강주식, 송세교		4	10	14		28
정조	송문좌, 김득후, 임도형, 흥광국, 신석정, 배정로, 홍우조, 김취남, 한의열, 김용필, 김태복, 이문백, 황혜운, 방윤철, 이형, 염두복, 전홍철		9	3	5	0	17
순조	김사급, 박홍덕, 이희술, 송이경, 최경주, 김한정, 조원성, 유옥, 조대복, 조상인, 이동형, 조광필, 한득칠, 강국신, 주태형, 김상한, 이대복, 장덕주		3	7	7	2	19
현종	임일득, 김한필, 정육신, 이병철, 표상관, 김인순, 장봉한, 조유풍, 김유곤, 조상린	1	2	4	3		10
철종	김하혁, 고한주, 안광영, 김종우, 김광눌, 문주행, 최동성, 김인철, 조석우, 임덕항, 송응엽		5		5		10
고종	석승기, 임홍배, 김관희, 박응순, 김의환, 노태보, 조정관, 박윤진, 김석철, 김학주, 노정현, 유창호, 김화율, 유흔, 김기홍, 오연숙, 신광우, 이인상, 김현정, 유인주, 박의완	1	4	13	3		21
합계			3	34	51	54	12 154

즉 마량첩사의 성명은 약 154인이 확인되는데,³⁵⁾ 영조대 오도건은 2번 부임했으므로 실제로는 153인이다. 그 중에서 ‘숙종대 이함은 李囂 후손인데 이함이 첨사로 부임할 경우 仁祖反正에서 큰 공을 세운 이서의 神主가 빈 집에 방치될 우려가 있어³⁶⁾ 현종대 임일득은 老母가 91세이고³⁷⁾ 고종대 김화율도 어머니가 75세인데³⁸⁾ 아버지나 어머니의 나이가 75세 이상이면 遠離에 부임하지 않는 것이므로’ 교체되었다. 따라서 부임한 마량첩사는 151인이다. 왕대별 마량첩사 수는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던 영조대가 28인으로 가장 많았고, 숙종대가 25인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고종대는 마량진이 1895년 폐지되었기 때문에 순조대보다 존속 기간이 3년 정도 짧았음에도 21인으로 세 번째였다. 재임기간을 알 수 있는 139인 중 24개월 이상이 54인으로 가장 많은 약 38.85%였고, 12~24개월 미만이 약 51인으로 약 36.69%였으며, 12개월 미만이 34인으로 약 24.46%였다. 마량첩사의 성명은 인조대 이후 『承政院日記』가 활용되면서 훨씬 많이 파악된다.

한편 부임한 마량첩사 151인 중 52인은 교체사유를 알 수 있는데, 왕대별 마량첩사의 교체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35) 마량첩사의 성명은 『承政院日記』를 기본 자료로 하되, 『朝鮮王朝實錄』·『備邊司謄錄』·『日省錄』과 문집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한편 ‘숙종대 최호중·최호진, 정조대 전호철·김홍철’처럼 같은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성명이 자료에 따라 다르게 기재된 경우는, 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성명을 하나로 통일하였다.

36) 각종 자료에 기재된 마량첩사의 성명은 154인이 넘는다. 하지만 인조대 최응상처럼 적량첩사인데도 마량첩사로 잘못 표기된 경우(『承政院日記』 인조 17년 9월 19일<癸酉>;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10월 6일<己丑>)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154인으로 보았다.

37) 『承政院日記』 숙종 9년 7월 23일(壬辰).

38) 『承政院日記』 현종 즉위년 12월 28일(戊午).

39) 『承政院日記』 고종 21년 2월 20일(丙寅).

〈표 3〉 왕대별 마량첨사의 교체사유

교체 사유 왕대별	罷黜							遷職				사 망	합 계
	褒貶 中 이하	가령 주구	漕船호송, 領運잘못	해방 잘못	병	出榜 잘못	기타	副 護 軍	行左 承旨	만 호	相 換		
중종				1									1
인조		2	1										3
효종					1								1
숙종	1						7	1					9
영조	3	1	1				3				1	1	10
정조	1	1	2				1			1	1		7
순조	8	1		1	1								11
현종	2												2
철종	3								1				4
고종		1	1				1					1	4
합계	18	6	5	2	1	1	12	1	1	1	2	2	52

즉 마량첨사 52인의 교체사유는, ‘罷黜 45인, 遷職 5인, 사망 2인’이었다. 첫 번째로 직무를 잘못 수행한 44인과 병이 심한 1인 등 45인이 파출되었다. 그 중에서 褒貶에서 中考 이하를 받은 경우⁴⁰⁾가 18인으로 가장 많았는데, ‘숙종대 신응기, 영조대 변하징·이세준·송세교, 정조대 방윤철, 순종대 박홍덕·송이경·조원성·조광필·강국신·김상한·이대복·장덕주, 현종대 장봉한·조상린, 철종대 김하혁·김종우·김광눌’ 등이었다. 다음으로 가령주구가 6인이었는데, ‘인조대 유시공·정조대 임도형·순조대 주태형은 防軍 紿代錢 문제로, 순조대 주대형은 船需錢을 私用한 죄로, 인조대 이담은 放軍收布 잘못으로, 영조대 나완은 거짓 문서를 만들어 안면도 소나무 7그루를 준 죄로’ 파면되었다.⁴¹⁾ 이어 漕船을 잘못譲送·領運하여 5인이 파직되었는데, ‘인조대 김극겸, 영조대 조중복, 정조대 김취남·이문백, 고종대 박윤진’ 등이었다. 그런데 마량진처럼 전기부터 존속한 소

40)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2차례 포폄에서 임기 중 2번 中을 받으면 파직되었다(『大典會通』 권4, 兵典 褒貶 “京外職三十朔窯 兩次居中人 依吏曹例 罷職”).

41) 한편 고종대 김석철은 마량첨사에서 다른 직책으로 옮겨갔지만, 마량첨사로 재직했을 때 公錢을 착복한 잘못 등으로 파직되었다(『承政院日記』 고종 15년 4월 3일<己酉>).

근진의 경우 첨사 교체사유 중 첫 번째는 포폄으로 마량첨사와 같으나, 潛船 호송 잘못이⁴²⁾ 소근첨사는 두 번째이고 마량첨사는 세 번째라는 점에서 마량첨사는 조세선 指路護送 잘못으로 인한 파출이 소근첨사보다 적었다. 그것은 마량첨사가 지로호송을 맡은 비인현 등 海路가, 소근첨사가 담당한 태안 등 바닷길보다 덜 험난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밖에 ‘중국 선박을 왜적이 탄 배로 오인하여 공격한 중종대 정세린과 이양선인 영국 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순조대 조대복은 海防 잘못으로, 순조대 유옥은 병이 심하여, 효종대 이시옥은 出榜을 잘못하여 榜目을 改出한 죄’로 파출되었다. 기타 12인은 파면 사유는 모르지만 의금부에 잡혀가 심문을 받은 후 파직된 것은 물론이고 직첩 還授 및 教用 등을 통해 파면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숙종대 송상의 · 방만원 · 장준홍 · 최세기 · 안지복 · 전성일 · 어사충, 영조대 홍보인 · 이덕립 · 서명신, 정조대 홍광국, 고종대 조정관’ 등이었다. 두 번째로 遷職이 5인이었다. 숙종대 김원일과 철종대 조석우가 내직으로 옮겨갔고, ‘정조대 송문좌는 口傳政事로 영등포만호가 되고, 영조대 이춘부는 화량첨사 강주식과 그리고 정조대 이형은 조령별장과 직책을 서로 바꿈으로써’ 종전처럼 외직을 담당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2인은 사망하여 교체되었는데, ‘영조대 정한언은 조운차사원으로 서울에 왔다가 병으로, 고종대 유창호는 마량진에서 宿病으로⁴³⁾ 죽었다.

한편 마량첨사는 1865년(고종 2)부터 公忠監營⁴⁴⁾ 군관 중에서 自辟하도록 하였다.⁴⁵⁾ 때문에 瓜限도 900일에서⁴⁶⁾ 元山別將처럼 24개월이 되었으며, 자벽이므

42) 서태원, 2016b 앞의 논문, 95-96면.

43) 『各司贍錄』 忠清道篇 3, 忠清道水營狀啓贍錄 6, 光緒 10年 1월 3일, 忠清道水軍節度使臣梁柱星.

44) 청주는 1864년 大逆不道罪人 韓海玉이 태어난 곳이라고 하여 呂號가 西原縣으로 강등되었다가 1873년 청주목으로 복구되었다[『湖西邑誌』 10책, 清州 建置沿革(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 『邑誌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423면)]. 때문에 1865년 충청도는 공충도로 불리었다.

45) 『高宗實錄』 권2, 고종 2년 10월 丁酉: 『承政院日記』 고종 2년 10월 6일(丁酉); 『日省錄』 고종 2년 10월 6일.

46) 『經國大典』 권4, 兵典 外官職 “未掣家僉節制使 · 萬戶則九百乃遞”: 『大典會通』 권4, 兵典 外官職.

로 辭朝도 하지 않았다.⁴⁷⁾ 물론 마량첨사의 자벽은 巡營(감영)에서⁴⁸⁾ 했지만, 殿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帥臣이 주관하였다.⁴⁹⁾

(2) 군병

조선시대 충청도 마량진의 왕대별 수군의 종류와 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4〉과 같다.

〈표 4〉 조선시대 충청도 마량진의 왕대별 수군의 종류와 수⁵⁰⁾

(단위: 명)

왕대별 수군의 종류 수군의 수	선군	수군	신선군	주사군	합계
세종대 (충청우도 도만호진)	1,302				1,302
성종대		1,120			1,120
고종대 ⁵¹⁾		744	80	323	1,147

즉 첫 번째로 세종대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진으로 불린 마량진에는 船軍 1,302명이 설치되었다. 아울러 선군은 충청우도 도만호진 소속 서천포만호진 797명과

47) 『承政院日記』 고종 2년 11월 2일(癸亥); 『日省錄』 고종 2년 11월 2일.

48) 巡營은 관찰사가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 이후 巡察使의 임무를 겸임하면서 붙여진 명칭이다(『明宗實錄』 권19, 명종 10년 10월 己卯; 서태원, 2002 「19세기 지방군의 치안구조와 鎮營」, 『사학연구』 65, 76-77면).

49) 『承政院日記』 고종 4년 10월 11일(庚寅) “海西之龍媒 湖西之馬梁 俱是巡營自辟 而殿最則帥臣主管”; 『日省錄』 고종 4년 10월 11일.

50) 『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 권149, 忠淸道 5책 624면; 『經國大典』 권4, 兵典 諸道兵船忠淸道; 『湖西邑誌』 13책, 庶仁 馬梁鎮 馬梁鎮誌與事例(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 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616면).

51) 한편 영조대 『輿地圖書』에는 마량진 주사군 수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량진과 전함의 종류와 수가 같았던 영조대 소근진 주사군 수가 323명이고(『輿地圖書』 상, 忠淸道 泰安 鎮堡 所斤鎮), 고종대 마량진 주사군 수도 323명이라는 점에서 영조대 마량진 주사군 수도 323명으로 추정된다.

고만량만호진 661명을 비롯하여, ‘충청도 수군 최고 지휘관이 배치된 도안무처치 사진 1,766명, 충청좌도 도만호진 1,400명, 충청좌도 도만호진 소속 파지도만호진 790명 · 당진만호진 790명 · 대진만호진 794명’ 등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선군 8,300명에 船直 114명을 더하면 세종대 충청도에는 총 8,414명의 수군이 설치되었고,⁵²⁾ 전국의 수군은 50,402명이었다.⁵³⁾

두 번째로 성종대 거진 마량진에는 수군 1,120명이 배치되었다. 아울러 마량진 관에 소속된 제진 서천포 700명을 비롯하여, ‘주진(수영) 2,200명, 거진 소근포 진 1,220명, 소근포진 소속 제진 파지도진 700명 · 당진포진 1,340명’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성종대 충청도에는 수군 7,280명이 설치되었고,⁵⁴⁾ 전국의 수군은 48,800명이었다.⁵⁵⁾ 마량진은 물론이고 성종대 충청도와 8도 수군의 수는 세종대 충청도 8,414명 및 전국 50,402명보다 적었다. 성종대는 漕運에 수군이 동원되던 관행을 개정하려고⁵⁶⁾ 漕卒 5,960명을⁵⁷⁾ 따로 설치하면서 수군 수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고종대 마량진에는 ‘수군 744명, 신선군 80명, 주사군 323명’ 등 1,147명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고종대 수군 · 신선군은 세종대 선군이나 성종대 수군처럼 실제로 복무하는 군병이 아니라, 1명당 1년에 2냥을 납부하고 복무하

52) 『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 권149, 忠清道 5책 625면.

53) 『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 권148, 京畿 5책 615면; 권149, 忠清道 5책 625면; 권150, 延慶道 5책 636-637면; 권151, 全羅道 5책 655면; 권152, 黃海道 5책 669면; 권153, 江原道 5책 675면; 권154, 平安道 5책 682면; 권155, 咸吉道 5책 693면.

54) 『經國大典』 권4, 兵典 番次都目 水軍 番次 二番 一溯相遞; 권4, 兵典 諸道兵船 “大猛船 每一隻 水軍 八十人 中猛船 每一隻 水軍 六十人 小猛船 每一隻 水軍 三十人”; 권4, 兵典 諸道兵船 忠清道 “大猛船十一隻, 中猛船 三十隻, 小猛船 二十四隻, 無軍小猛船 四十隻”; 전함 1척당 수군 정원이 대맹선 80명 · 중맹선 60명 · 소맹선 30명이고 수군은 二番이므로, 대맹선 11척 · 중맹선 34척 · 소맹선 24척 · 무군소맹선 40척이 설치된 성종대 충청도 수군 수는 7,280명이다.

55) 『經國大典』 권4, 兵典 番次都目 水軍.

56) 이민웅, 2004 『임진왜란 해전사: 7년 전쟁, 바다에서 거둔 승리의 기록』, 청어람미디어, 37면.

57) 『經國大典』 권4, 兵典 番次都目 漕卒.

지 않는 군병이다. 따라서 세종대 선군이나 성종대 수군처럼 실제로 海防 등을 담당하는 군병은 주사군이었다. 주사군 323명 중에서 장교는 '代將 1인, 知轂官 1인, 旗牌官 10인, 教師 2인, 訓導 2인, 捕盜官 4인, 火砲教師 2인' 등 22인이고, 군졸은 代將의 隨率 1명을 비롯하여 '射手 40명, 砲手 49명, 旗手 23명, 鐸·鼓手 13명, 能櫓軍 175명' 등 301명이었다. 장교와 수출은 鎮下民 중에서 差定하였고, 사수는 해당 읍에서 각각 充定하였으며, 그 외 군졸은 전에서 용모를 疙記하여 정하되 각 읍에 산재하였다.

그런데 고종대 마량진 주사군 323명은 성종대 수군 1,120명에 비해 너무 적었고, 충청도 주사군 4,799명도 성종대 수군 7,280명에 비해 매우 적었다. 이러한 현상은 첫 번째로 고종대 수군 744명·신선군 80명은 복무하지 않는 군병이기 때문인데, 1794년(정조 18) 편찬된 『賦役實摠』에도 고종대보다 60명 많은 수군 804명과 신선군 80명이 각 읍에 배정되어 마량진에 1명당 1년에 2냥씩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⁵⁸⁾ 두 번째로 조선전기와 달리 조선후기에는 수군 진은 물론이고 읍에도 주사군이 배치되어 주사군이 분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량진이 있는 비인현에 주사군 129명이 설치되었고, 서천포가 위치한 서천군에 196명, 서천군 오른 쪽 임천군에 245명과 한산군에 247명이 배치되었다.⁵⁹⁾ 세 번째로 성종대 수군은 2교대이므로⁶⁰⁾ 전함에 승선할 수군의 2배를 마련했지만, 『平薪鎮舟師軍兵辛卯式草都案』에서⁶¹⁾ 알 수 있듯이 고종대 주사군은 有事時 전함을 타고 그 기간만큼 급료를 받는 군병이 따로 있었으므로 마량진 주사군 수가 적었다.

58) 『賦役實摠』 2·3책, 忠清道 '홍주·공주·한산·서천·임천·문의·전의·결성·보령·남포·비인·홍산·정산·석성·진잠', 營邑捧用秩, 馬梁鎮, 水軍錢·新選錢(여강출판사 영인본, 1984 『賦役實摠』 상, 72·77·93·97·124·127·161·177·181·184·187·191·202·205·218면).

59) 『湖西邑誌』 4·13·14·16책, 임천·비인·한산·서천(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 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178·611·698·783면). 그런데 비인현 주사군 129명은, '代將 1인·旗牌官 5인·訓導 1인·左捕盜官 2인·吹手 3명·군병 116명'의 합계가 128명이므로 계산이 1명 잘못되었다.

60) 『經國大典』 권4, 兵典 番次都目 水軍 番次.

61) 『平薪鎮舟師軍兵辛卯式草都案』(想白古 355.22-P993).

실제로 고종대 충청도 주사군 수는 ‘임천군 245명, 당진현 128명, 결성현 118명, 서산군 322명, 평신진 233명, 비인현 129명, 마량진 323명, 태안군 240명, 안흥진 327명, 소근진 323명, 한산군 247명, 보령현 129명, 해미현·남포현·수영 1,432명, 서천군 196명, 서천포 227명, 면천군 180명’ 등 4,799명으로⁶²⁾ 성종대 충청도 수군 7,280명보다 매우 적었다. 하지만 전함에 실제로 승선하는 인원수는, 성종대 수군은 2교대이므로 전체 수군 수 7,280명의 절반인 3,640명인데 비해, 고종대 충청도 주사군은 4,799명이라는 점에서 고종대가 오히려 많았다. 비록 조선전기 성종대 수군은 승선인원의 2배를 확보함으로써 휴식이나 유사시 많은 군병의 동원 등에서 유리하지만, 고종대 주사군은 직업 군인처럼 계속 복무한다는 점에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돋보인다고 여겨진다.

2) 물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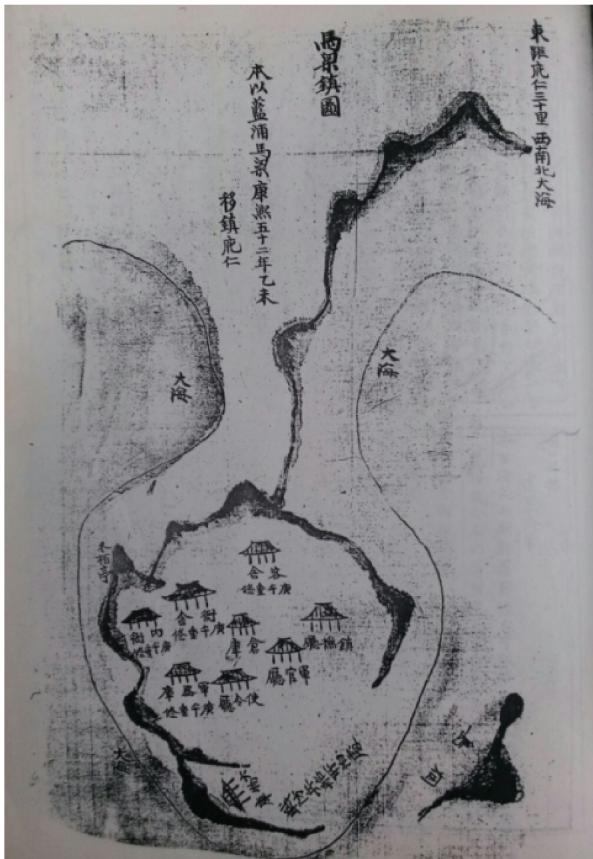
(1) 公廨

마량진 公廨를 『호서읍지』·『해동지도』·『1872년 지방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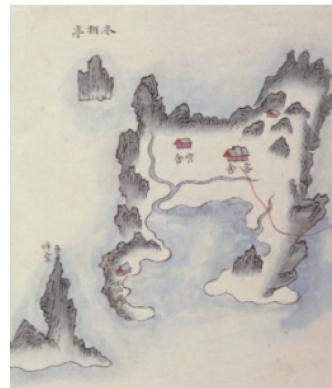
즉 먼저 조선후기 마량진 公廨에 대해서는 <그림 3> 『호서읍지』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호서읍지』의 하단 중앙에 있는 공해 중 ‘맨 위 첫 번째 줄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內衙·衙舍·客舍, 중간 두 번째에 倉庫와 鎮撫廳, 세 번째 줄 軍器庫·使令廳·軍官廳, 맨 아래 六物庫’ 등이 그려져 있고, 육물고 오른 쪽에 戰·防·兵船所泊處도 표기되었다.

62) 『湖西邑誌』 4·5·6·13·14·15·16책, 임천·당진·결성·서산·평신진·비인·마량진·태안·안흥진·소근진·한산·보령·수영·서천·장암진(서천포)·면천(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178·230·255·272·285·611·616·671·675·676·677·698·736·739·783·795·807면); 한편 영조대 『輿地圖書』에서의 충청도 군병은 4,801명으로 고종대 『湖西邑誌』보다 2명이 많다(『輿地圖書』 상, 忠淸道 水軍節度營 軍兵).

63) 『湖西邑誌』 13책, 庶仁 馬梁鎮 馬梁鎮圖(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8 :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615면); 「충청도 마량진」 『해동지도』(古大4709-41); 「충청도 비인현지도」 『1872년 지방지도』.



〈그림 3〉『호서읍지』의 비인현 마량진 공해

〈그림 4〉『해동지도』의
마량진 공해〈그림 5〉『1872년 지방지도』
비인현 마량진 공해

아울러 内衙·衙舍·客舍·軍器庫는 庚午에 重修했는데, 『호서읍지』가 1871년 辛未에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경오는 신미의 한 해 전인 1870년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림 3〉의 상단 중앙에 남포 마량진이 비인으로 옮긴 해를 ‘本以藍浦馬梁康熙五十二年乙未移鎮庇仁’라고 표기하였다. 하지만 康熙 52년은 1713년(숙종 39)으로 干支가 乙未가 아니라 癸巳이므로 잘못된 표기이고, 을미년은 順治 12년 1655년(효종 6)이다. 다음으로 1750년대 초에 작성된 것으로⁶⁴⁾ 보이는 〈그림 4〉 『해동지도』에는 중앙의 官舍·客舍와 함께 하단 왼쪽 烽臺 오른 쪽의 船泊處에

64) 배우성, 『해동지도』(古大4709-41), 총설.

도 건물이, <그림 5>『1872년 지방지도』에도 하단 중앙 육지 끝 오른 쪽 馬梁鎮이라는 글자 위에 공해 3개가 그려져 있다.

한편 마량진이 남포현에 있었을 때는 성이 있었으나 비인현으로 이전했을 때에는 성이 축조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해동지도』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⁶⁵⁾



<그림 6>『해동지도』의 남포현 마량진



<그림 7>『해동지도』의 비인현 마량진

즉 조선전기 남포현 마량진은, <그림 6>『해동지도』의 하단 오른 쪽 굽은 원안에 즉 성에 旧馬梁으로 표시된 곳이다. 남포현 마량진에는 三浦倭亂이 발생한 1510년(중종 5)부터 둘로 쌓은 성이 존재하였는데, 둘레는 1,371척이고 높이는 9 척이며 성 안에 우물이 1개 있었다.⁶⁶⁾ 반면 1655년(효종 6) 남포현에서 옮겨온 비인현 마량진은, <그림 7>『해동지도』의 왼쪽 중앙의 건물이 있는 곳으로 건물 아래에 馬梁鎮이라고 쓰여져 있다. <그림 7>은 물론이고 <그림 3>·<그림 4>·<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비인현 마량진에는 城이 축조되지 않았다. 안홍진의 경우도 1653년 안홍성 건너편 섬에 新鎮을 설치했으나, 성이 축조되지 않았다.

65) 「충청도 남포현」·「충청도 비인현」『해동지도』(古大4709-41).

66) 『中宗實錄』 권12, 중종 5년 9월 壬申: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0, 忠清道 藍浦縣 關防 馬梁鎮 “在縣西三十三里 有右道水軍僉節制使營 所管舒川浦 僉節制使一人 新增 正德庚午始築石城 周一千三百七十一尺 高九尺 內有一井”

신하들이 신진에 성을 쌓고 일시에 많은 館舍를 지으면 재물·인력의 소비가 매우 심하다며 반대하자, 안흥의 일을 주관한 이후원이 신진이 설치될 섬을 살펴본 후 샘이 마르기 쉽고 바람이 자주 부는 문제가 있다며 성을 축조하지 말고 舊鎮이 있는 안흥성을 증축하자고 한 것을 효종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⁶⁷⁾

따라서 비인현 마량진에 성이 축조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안흥의 新鎮에 성을 쌓으려 했을 때 많은 신하들이 반대 이유로 내세웠던 재정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으로 여겨진다. 물론 마량진은 안흥진처럼 江都를 돋기 위해 군량을 비축하는 곳도 아니었고, 충청도 수군첨절제사진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했으므로 청의 침략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진에 비해 덜 위험하였다. 아울러 임진왜란 이후 灣 안쪽에 위치했던 파지도진·당진포진을 폐지하고 안흥진을 만호진에서 첨절제사진으로 승격시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방어의 측면보다는 신속하게 큰 바다로 나아가 적을 물리치는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청도 수군정책의 변화가 나타난 것도 성을 쌓지 않은 하나의 이유로 추정된다.

(2) 戰艦

조선시대 충청도 마량진의 왕대별 전함의 종류와 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조선시대 충청도 마량진의 왕대별 전함의 종류와 수⁶⁸⁾

(단위: 척)

왕대별 전함의 종류	대형선		중형선		소형선		별 선	무군선		사 후 선	합계
	대 맹 선	전 선	중 맹 선	방선 (방폐선)	병선 (복불선)	소 맹 선		무 군 선	무 군 소맹선		
세종대					16		2	1			19
성종대	1		6			4			10		21
영조대~고종대 ⁶⁹⁾		1		1	1					3	6

67) 서태원, 2013a 앞의 논문, 114-119면.

68) 「世宗實錄地理志」『世宗實錄』권149, 忠淸道 5책, 624면; 『經國大典』권4, 兵典 諸道兵船 忠淸道; 『輿地圖書』상, 忠淸道 水軍節度營 戰艦 邑鎮 馬梁。

69) 한편 고종대 마량진 전함의 종류와 수[『湖西邑誌』(1871) 13책 庶仁 馬梁鎮 馬梁鎮誌與

즉 첫 번째로 세종대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진인 마량진에는 병선 16척 · 별선 2척 · 무군선 1척 등 19척이 배치되었는데, 병선이 16척으로 가장 많았다. 충청도 전체 전함에서도 병선은 총 92척으로 약 64.8%를 차지하였는데, 소형 전함인 병선이 충청도 전함의 주축을 이룬 것은 왜구 침입을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서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별선 2척은 왜구를 추격하여 拿捕 · 격파하기 위한 전함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도안무처치사진의 追倭別猛船 6척 및 좌도 도만호진의 追倭別船 2척의 명칭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無軍船 1척은 예비 군선으로⁷⁰⁾ 볼 수도 있지만, 조선후기 伺候船처럼 전투보다는 정찰 · 연락이 주 임무이므로 無軍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아울러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진 소속 서천포만호진에 병선 16척 · 고만량만호진에 병선 10척, 도안무처치사진에 중대선 6척 · 중맹선 18척 · 쾌선 4척 · 추왜별맹선 6척 · 무군중대선 6척 등 40척, 충청좌도 도만호진에 병선 11척 · 추왜별선 2척 · 무군선 2척 등 15척, 충청좌도 도만호진 소속 ‘파지도만호진에 병선 13척 · 별선 2척 · 무군선 1척 등 16척, 당진만호진에 병선 13척, 대진만호진에 병선 13척’이 배치되었다. 따라서 세종대 충청도에는 중대선 6척 · 중맹선 18척 · 쾌선 4척 · 병선 92척 · 추왜별맹선 6척 · 추왜별선 2척 · 별선 4척 · 무군중대선 6척 · 무군선 4척 등 142척이 설치되었는데, 전국 전함은 829척이었다.⁷¹⁾

두 번째로 성종대 수군첨결제사진인 巨鎮 마량진에는, 대맹선 1척 · 중맹선 6척 · 소맹선 4척 · 무군소맹선 10척 등 21척이 배치되었다. 수군은 ‘大猛船 1척 80명, 중맹선 1척 60명, 소맹선 1척 30명’이고⁷²⁾ 소맹선과 병선은 같은 규모이므로, 성종대 중맹선 6척 및 소맹선 4척은 세종대 병선 16척에 해당된다. 따라서 성종

事例 戰船(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 『呂誌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616면)은 영조 대와 일치하였다.

70) 이민웅, 앞의 책, 36면.

71) 「世宗實錄地理志」『世宗實錄』 권148, 京畿 5책 615면; 권149, 忠淸道 5책 625면; 권150, 慶尙道 5책 636-637면; 권151, 全羅道 5책 655면; 권152, 黃海道 5책 669면; 권153, 江原道 5책 675면; 권154, 平安道 5책 682면; 권155, 咸吉道 5책 693면.

72) 『經國大典』 권4, 兵典 諸道兵船; 『肅宗實錄』 권40, 30년 12월 甲午; 『備邊司謄錄』 숙종 42년 10월 24일.

대 마량진은 세종대보다 별선 2척은 없었지만, 대맹선 1척과 무군선 9척이 증가하였다. 반면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의 통제를 받던 고만량만호진이 1457년 폐지되었고, 마량진관 소속 諸鎮 서천포에는 대맹선 1척 · 중맹선 4척 · 소맹선 1척 · 무군소맹선 5척 등 11척이 설치되어 세종대보다 무군소맹선 5척이 증가했으나 병선 4척 정도에 해당되는 전력이 약화되었다. 아울러 성종대 충청도 수군 진에는 ‘주진에 대맹선 4척 · 중맹선 8척 · 소맹선 10척 · 무군소맹선 10척 등 32척, 거진 소근포진에 대맹선 2척 · 중맹선 6척 · 소맹선 3척 · 무군소맹선 8척 등 19척, 소근포진관 소속 제진 당진포에 대맹선 2척 · 중맹선 7척 · 소맹선 3척 · 무군소맹선 4척 등 16척 및 파지도에 대맹선 1척 · 중맹선 3척 · 소맹선 3척 · 무군소맹선 3척 등 10척’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성종대 충청도 수군 鎮에는 대맹선 11척 · 중맹선 34척 · 소맹선 24척 · 무군소맹선 40척 등 109척이 배치되었는데, ‘대맹선 약 10.1%, 중맹선 약 31.2%, 소맹선 약 22%’를 차지하였다. 이시기에 중 · 소맹선이 군선의 주종을 이룬 것은 왜선을 추격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소형 군선을 선호했기 때문이며,⁷³⁾ 8도 전함은 737척이었다.⁷⁴⁾

세 번째로 영조대~고종대 마량진에 설치된 전함은 전선 1척 · 방선 1척 · 병선 1척 · 사후선 3척 등 6척으로, 성종대 대맹선 1척 · 중맹선 6척 · 소맹선 4척 · 무군소맹선 10척 등 21척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아울러 서천포 4척을 비롯하여 ‘주진에 전선 2척 · 귀선 1척 · 방선 1척 · 병선 2척 · 사후선 7척 등 13척, 거진 소근진에 전선 1척 · 방선 1척 · 병선 1척 · 사후선 3척 등 6척, 거진 안흥진에 귀선 1척 · 방선 1척 · 병선 1척 · 사후선 3척 등 6척, 거진 평신진에 방선 2척 · 병선 1척 · 사후선 2척 등 5척’ 등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충청도 진에 배치된 전함은 총 40척으로,⁷⁵⁾ 성종대 대맹선 11척 · 중맹선 34척 · 소맹선 24척 · 무군소맹선 40척 등 109척에 비해 매우 적었다.

이렇게 영조대~고종대 마량진과 충청도 수군 진에 설치된 전함 수가 성종대

73) 이민옹, 앞의 책, 37면.

74) 『經國大典』 권4, 兵典 諸道兵船.

75) 『輿地圖書』 상, 忠淸道 水軍節度營 戰艦 本營 · 安興 · 平薪 · 所斤 · 馬梁 · 舒川浦.

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은 전함이 수군 진에만 배치된 성종대와 달리, 영조대~고종대에는 수군 진은 물론이고 수군 진이 위치한 읍 및 주변 읍에도 설치되어 전함이 분산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조대 옛 마량진이 있었던 남포현과 현재 마량진이 위치한 비인현에 각각 방선 1척·병선 1척·사후선 1척이, 서천 포가 위치한 서천군에 방선 2척·병선 1척·사후선 2척이, 서천군 오른 쪽 임천·한산군에도 각각 방선 2척·병선 1척·사후선 2척이 설치되었다.⁷⁶⁾ 읍에 전함을 배치한 목적은 임진왜란을 경험한 후 유사시 읍에 거주하는 수군을 신속하게 출동시킬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1603년 임천·한산 戰船 이 폭풍우로 파괴된 것을⁷⁷⁾ 통해 임진왜란 후 전함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1635년 風變으로 三南의 戰船이 거의 파괴되고 왜적의 정세도 의심스럽자 통제사를 역임한 형조판서 구광을 京畿·慶尙·全羅·公淸道 舟師句管堂上으로 임명하고,⁷⁸⁾ 충청도에 설치할 전함으로 '태안군 등 5개 읍은 각각 전선 1척, 보령·결성현처럼 작은 고을은 두 읍이 함께 전선 1척, 남포현은 작지만 배 만들 재목이 생산되므로 전선 1척, 서산군은 원래 배정한 전선 외에 방폐선 1척, 비인·당진·해미현은 각각 방폐선 1척' 등을 배정하였다.⁷⁹⁾ 이어 1637년 丁丑亂 후에 면천군은 당진현과 함께 전선 1척을 만들었다.⁸⁰⁾ 그 결과 영조대 충청도에는 '홍주목·서산군에 각각 귀선 1척·방선 1척·병선 1척·사후선 3척, 태안군에 귀선 1척·병선 1척·사후선 2척, 서천·임천·한산군에 각각 방선 2척·병선 1척·사후선 2척, 면천군과 비인·남포·결성·해미·보령·당진현에 각각 방선 1척·병선 1척·사후선 1척'이⁸¹⁾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

76) 『輿地圖書』 상, 忠淸道 水軍節度營 戰艦 舒川·林川·韓山·庇仁·藍浦.

77) 『宣祖實錄』 권164, 선조 36년 7월 甲戌.

78) 『仁祖實錄』 권31, 인조 13년 8월 癸卯.

79) 『仁祖實錄』 권31, 인조 13년 9월 癸酉. 1635년 統制營 관할 지역인 충청도·전라도 등 서해안의 읍에 戰船을 확대 설치한 목적은 유사시 統禦營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송기중, 2016 『조선후기 수군제도의 운영과 변화』,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3-55면).

80) 『孝宗實錄』 권4, 壓종 1년 7월 壬申.

81) 『輿地圖書』 상, 忠淸道 水軍節度營 戰艦 洪州·瑞山·舒川·林川·韓山·泰安·庇仁·藍浦·泗川·結城·海美·保寧·唐津.

아울러 조선후기에는 전함의 선체가 커져 승선하는 군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선전기 전함 정원은 대맹선 80명 · 중맹선 60명 · 소맹선 30명이고, 대맹선 · 중맹선 · 소맹선은 조선후기에 戰船 · 防船 · 兵船으로 변했다.⁸²⁾ 먼저 대맹선 정원 80명에 비해 전선은 영조대 ‘統制營 本營 187~217명과 소속 鎮 · 邑 169~192명,⁸³⁾ 경상좌수영 본영 170~174명과 소속 진 · 읍 174~184명’이었고⁸⁴⁾ 영조대 · 고종대 충청도 소근진은 172~174명으로 추정된다.⁸⁵⁾ 전선 정원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전함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옥선(전선)의⁸⁶⁾ 底板 길이는 1615년(광해군 7)에 비해 1687년(숙종 13)에는 ‘統營 上船(大船)은 70척에서 72.5척으로, 水使 등이 탑승하는 中船은 50척에서 60~65척으로, 각 읍 · 진 전선은 47.5~50척에서 57.5~65척’으로 늘어났고,⁸⁷⁾ 숙종대 「수군변통절목」과 「兩南水軍變通節目」에 의하면 船制가 차츰 커져 큰 전선은 좌우 櫨櫨사이가 24間에 이르고 노 짓는 군사가 120명이 필요하여 古制 80명으로는 운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음으로 중맹선 정원 60명에 비해 방선(방폐선)의 정원은 영조대 통제영 본영 90명이고 고종대 충청도 평신진은 『平薪鎮舟師軍兵辛卯式草都案』에 의하면 88~90명이었으며, 소맹선 정원 30명에 비해 병선 정원은 ‘통제영 본영 39명과 소속 진 · 읍 30~36명, 경상좌수영 본영 및 소속 진 · 읍 36명, 평신진 43명’이었다. 따라서 방선은 물론이고 병선도 통제영 본영이나 충청도 평신진의 경우 정원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선체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82) 『續大典』 권4, 兵典 諸道兵船. 한편 「水軍變通節目」(『肅宗實錄』 권4, 30년 12월 甲午)과 「兩南水軍變通節目」(『備邊司謄錄』 숙종 42년 10월 24일)에서는 대맹선 · 중맹선 · 소맹선 정원은 『續大典』과 일치하나, 중맹선을 귀선으로 그리고 소맹선을 방선 · 병선이라고 서술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83) 『輿地圖書』 하, 慶尙道 統制營 水軍.

84) 『輿地圖書』 하, 慶尙道 水軍節度營 水軍.

85) 서태원, 2016a 앞의 논문, 301-302면.

86) 판옥선은 움직임이 자유로우며 선체가 높고 튼튼하여 일본 수군을 압도할 수 있었으므로 임진왜란에서 조선 수군이 연승할 수 있는 배경 중 하나였다(이민웅, 앞의 책, 42~46면).

87) 김재근, 1994 『續韓國船舶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93-104면.

는 전함이 커져 많은 군병이 승선할 수 있었으므로, 영조대 충청도 전함 92척의 정원은⁸⁸⁾ 성종대 109척보다 1,161명이 많았다.

물론 전함이 커지면 선체가 높고 튼튼해져 小船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데에 유리하고, 군병·무기의 종류와 수도 많아진다는 점 등에서 戰力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평신진의 경우 정원 43명의 병선은 88~90명의 방선처럼 사수·조총수와 舵手·繩手 등은 설치되었으나, ‘군병을 조련하고 전투를 지휘하는 장교, 전투 등과 관련하여 각종 신호를 보내는 旗手 및 鐸手·鼓手·喇叭·太平·吹手, 花포수와 佛狼機·鎗子砲·正鐵子砲’ 등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⁸⁹⁾

한편 영조대 6도 전함 수는 776척으로,⁹⁰⁾ 성종대 8도 전함 수 737척보다 많았다. 영조대는 강원도·영안도 전함이 기재되지 않고⁹¹⁾ 경기도 4척·충청도 17척·평안도 14척이 줄었으나, 경상도 11척·전라도 30척·황해도 72척이 늘어나면서 성종대보다 39척이 증가하였다. 특히 황해도는 挾船 17척·艦船 21척·追捕船 23척 등 황당선⁹²⁾ 퇴치를 위해 소규모 군선의 배치가 확대되었다.⁹³⁾

(3) 재정

조선시대 마량진의 재정을 『湖西邑誌』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의 <표 6>와 같다.

88) 『輿地圖書』 상, 忠淸道 水軍節度營 軍兵: 한편 서태원, 2016a 앞의 논문, 311면에서 영조 대 충청도 주사군 수를 6,221명이라고 하였는데, 수영 주사군 4,801명에는 邑은 물론이고 鎮(안흥진·평신진·소근진·마량진·서천포)의 주사군 수도 포함되었으므로 충청도 주 사군은 4,801명이다. 한편 고종대 주사군 수는 4,799명으로 영조대보다 2명이 적었다.

89) 서태원, 2011 앞의 논문, 252-257면.

90) 『續大典』 권4, 兵典 諸道兵船.

91) 성종대 강원도에는 小猛船 14척·無軍小猛船 2척 등 16척이, 그리고 영안도에는 中猛船 2척·小猛船 12척·無軍小猛船 9척 등 23척이 설치되었다(『經國大典』 권4, 兵典 諸道兵船 ‘江原道, 永安道’).

92) 황당선의 단속·구축에 관해서는 강석화, 2006 「조선후기 황해도 연안 방위체계」 『한국 문화』 38이 참고가 된다.

93) 송기중, 앞의 논문, 93-95면.

〈표 6〉 마량진의 재정⁹⁴⁾

수입 품목 收入, 支出 수입 품목	수입		지출 支出
	액수	징수방법	
水軍錢	1,488냥	마량진 소속 각 읍 수군 744명에게 1명당 1년에 2냥 씩 징수	* 72냥 藥丸代上納 * 25냥 議政府年例納箭竹刈取糧米及上 送駄價下 * 592냥 勦使料條下 * 1,200냥 防軍等給代下 * 189냥 境內漕稅船護送船沙格等糧米及 給代下 * 20냥 戰防兵伺候等船所泊處每年掘浦 價下 * 177냥 6전 戰·防·兵船六物貿易條下 * 42냥 海外搜討時藍色沙格等給代下 * 134냥 4전 水營年例納給各樣補役條下
結錢	804냥	매년 巡營에서 劃下	
新選錢	160냥	마량진 소속 각 읍 신선군 80명에게 1명당 1년에 2냥 씩 징수. 매년 春秋로 나누 어 각 읍으로부터 收捧	
還米 이자	8석	추수 때 환미 80석의 10분 1 징수	
屯稅 ⁹⁵⁾	답 약 4,302석	1,434결의 屯畠에 每結 당 3석 징수	
	전 약 2,865석	1,91결의 屯田에 每結 당 1.5석 징수	
합계	錢 2,452냥, 米 약 15,167석		

즉 마량진 收入 품목은 수군전 · 결전 · 신선전 · 還米 · 屯稅 등으로, 합계는 錢 2,452냥 및 米 약 15,167석 등이었다. 지출 중 '防軍' 등 紿代 1,200냥, 勦使料 592냥, 마량진 경내 조세선 호송선의 沙格 등 粮米 및 급대 189냥, 戰 · 防 · 兵船의 六物貿易條 177냥 6전, 藥丸代 상납 72냥, 海外 搜討할 때 藍色 · 沙格 등 紿代 42냥, 전 · 방 · 병선 및 伺候船 등 정박처 매년 掘浦 비용 20냥은 마량진과 관련된 것이고, 그밖에 해마다 水營에 납부하는 各樣補役條 134냥 4전과 의정부에 납부하는 箭竹 刈取者 粮米 및 上送者 駄價 25냥도 있었다. 지출 합계가 총

94) 『湖西邑誌』 13책, 庇仁 馬梁鎮誌與事例(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616면).

95) 1862년 평신진 屯稅는 1결당 畠은 米는 3석 그리고 田은 미 1.5석였는데[『畿甸營事例』 3책, 水原 戸房掌 平薪稅穀秩(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5 『邑誌10: 경기도①』, 아세아문화사, 972면)], 마량진 둔세도 평신진처럼 계산하였다.

2,461냥이므로 錢의 수입 총액 2,452냥보다 9냥이 더 많았는데, 9냥은 屯稅나⁹⁶⁾還米의 이자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량진 재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로 水軍錢에 대해 살펴보자. 수군전 1,488냥은 각 읍에 배정된 마량진 소속 수군 744명에게, 군 복무를 하지 않는 대가로 1명 당 1년에 2냥씩 징수하였다. 마량진 수군전은 1794년(정조 18) 편찬된 『賦役實攤』에도 기재되었는데, 총액은 『호서읍지』에 비해 120냥이 많지만 각 읍의 수군전 액수를 잘 보여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충청도 각 읍이 마량진에 납부한 수군전의 액수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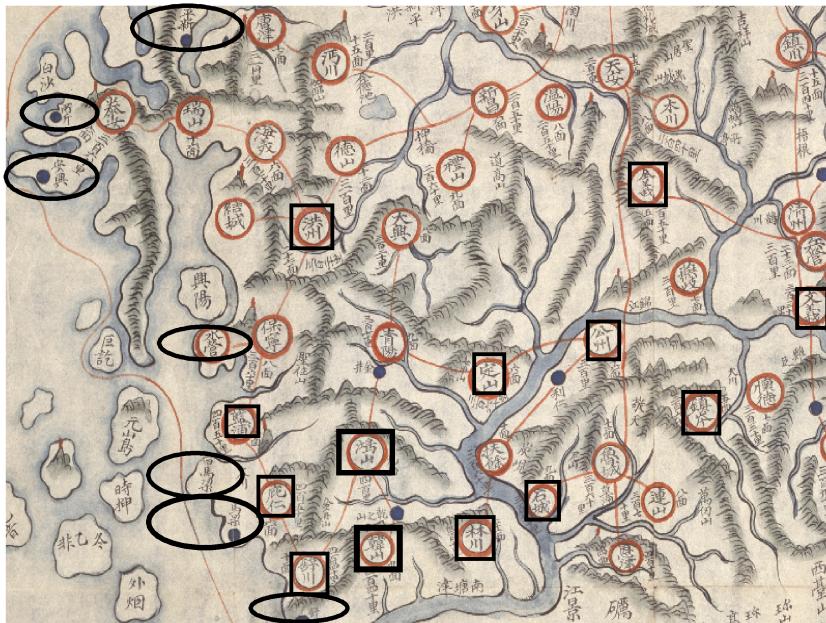
읍별	홍주	공주	한산	서천	임천	문의	전의	남포	비인	홍산	정산	석성	진잠	합계
수 군 수	5명	1명	276명	3명	5명	33명	33명	110명	78명	233명	3명	2명	22명	804명
액 수	10냥	2냥	552냥	6냥	10냥	66냥	66냥	220냥	156냥	466냥	6냥	4냥	44냥	1,608냥
합 계	0.5냥	0.3냥	55.2냥	0.3냥	1.5냥	6.6냥	10.89냥	16.5냥	7.8냥	46.6냥	0.6냥	0.5냥	11냥	158.29냥

즉 정조대 충청도 13개 읍이 마량진에 납부한 수군전의 총액은 1,608냥이었다. 마량진에 수군전을 납부한 충청도 13개 읍을 『해동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⁹⁸⁾

96) 1871년 충청도 평신진에서 田稅인 米 1석을 代錢하면 4.8냥이었다[『湖西邑誌』 6책, 瑞山平薪鎮誌 護漕(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8 : 충청도②』, 286면)].

97) 『賦役實攤』 2·3책, 忠清道 '홍주·공주·한산·서천·임천·문의·전의·남포·비인·홍산·정산·석성·진잠', 營邑捧用秩, 馬梁鎮水軍錢(여강출판사 영인본, 1984 『賦役實攤』 상, 72·77·93·97·124·127·161·184·187·191·202·205·218면).

98) 「경기도·충청도」 『해동지도』(古大4709-61).



〈그림 8〉 마량진에 수군전을 납부한 충청도 13개 읍

즉 〈그림 8〉 왼쪽 하단 오른 쪽 ¼지점에 위치한 첫 번째 타원형 안 점이 마량진관 소속 서천포를 표시한 것인데, ‘위로 두 번째 타원형에 비인현 마량진, 세 번째 타원형에 남포현 옛 마량진, 네 번째 타원형에 보령현 水營, 다섯 번째 타원형에 태안군 안홍진, 여섯 번째 타원형에 태안군 소근진, 일곱 번째 맨 위 타원형에 서산군 평신진’이 위치하였다. 비인현 마량진에 수군전을 납부한 충청도 13개 읍명은 □ 안에 기재되었는데, ‘맨 아래 첫 번째 타원형 위 서천, 서천 위 비인, 비인 위 남포, 남포 약간 오른 쪽 위 홍주, 서천 약간 오른 쪽 위 한산, 한산 위 홍산, 한산 오른 쪽 임천, 임천 위 정산, 임천 약간 오른 쪽 위 석성, 석성 약간 오른 쪽 위 공주, 공주 오른 쪽 아래 진잠, 공주 약간 오른 쪽 위 전의, 공주 오른 쪽 끝 문의’ 등이었다. 그 중에서 ‘한산군이 가장 많은 552냥을, 두 번째는 홍산현이 466냥을, 세 번째는 남포현이 220냥을, 네 번째는 비인현이 156냥을’ 마량진에 수군전으로 납부하였는데, 이들은 마량진이 위치한 비인현을 비롯하여 마량진 인근의 읍이었다.

반면 巨邑인 공주목은 가장 적은 2냥을 수군전으로 냈는데, 공주목은 ‘감영에

需米 700석 · 신선전 806냥, 수영에 수군전 376냥, 雙樹山城에 別軍官除番米 105 석 9두, 공주진영에 수미 49석 3두 8승 · 鋪陳饌價米 55석 12두 8승⁹⁹⁾ 등을 납부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거읍 홍주목도 ‘兵營에 主鎮騎兵錢 582냥, 수영에 수군전 914냥, 홍주진영에 수미 49석 13두 8승 · 鋪陳饌價米 65석 11두 3승 6흡, 안흥진에 騎兵錢 592냥¹⁰⁰⁾ 등을 제공했으므로 마량진에는 적은 액수인 10냥을 납부한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전의현 66냥 · 문의현 66냥 · 진잠현 44냥을 제외하면 마량진에서 멀리 떨어진 읍이나 소근진 · 안흥진 · 평신진이 위치한 읍 및 주변 읍은 마량진에 수군전을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수군전 징수 때 附加稅 성격을 띤 雜費錢도 거두었다. 잡비전은 각 읍의 수군전 징수자 · 수송자 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수군전의 5~25%를 거두었으며 총액은 158냥 2전 9푼이었다. 마량진이 위치한 비인현과 인근 서천군 및 홍주목이 가장 적게 수군전의 5%를 잡비전으로 책정하고 1명당 1錢씩, 마량진에서 멀리 떨어진 진잠현이 제일 많게 수군전의 25%를 잡비전으로 정하고 1명당 5전씩 징수하였다. 그 밖에 잡비전으로 1명당 ‘마량진 인근 남포현 1전 5푼씩, 한산군 · 문의현 · 홍산현 · 정산현 2전씩, 석성현 2전 5푼씩, 공주목 · 임천군 3전씩, 전의현 3전 3푼씩’을 거두었다.

두 번째로 안흥진의 사례를¹⁰¹⁾ 감안하면 結錢 804냥은 巡營(감영)이 정해준 금액을 각 읍이 마량진에 납부함으로써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결전은 영조대 균역법의 실시로 수군 진이 재정적 타격을 받자 토지세를 수취하여 紿代의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¹⁰²⁾

세 번째로 新選軍錢 160냥은 각 읍의 마량진 소속 신선군 80명에게 군 복무 대신 1년에 1명당 2냥씩 春秋로 나누어 징수하였다. 각 읍의 신선전 액수는 〈표 8〉과 같다.

99) 『賦役實攬』 2·3책, 忠清道 公주 營邑捧用秩(여강출판사 영인본, 1984 『賦役實攬』 상, 76-77면).

100) 『賦役實攬』 2·3책, 忠清道 홍주 營邑捧用秩(여강출판사 영인본, 1984 『賦役實攬』 상, 71-72면).

101) 『湖西邑誌』 14책, 泰安 安興鎮城池(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8 : 충청도②』, 675면).

102) 송기중, 앞의 논문, 160-172면.

〈표 8〉 충청도의 각 읍이 마량진에 납부한 신선전의 액수¹⁰³⁾

읍별	홍주	한산	서천	임천	결성	보령	남포	비인	홍산	합계
신선군 수	6명	6명	17명	6명	3명	3명	12명	6명	21명	80명
액수	12냥	12냥	34냥	12냥	6냥	6냥	24냥	12냥	42냥	160냥
잡비전	0.6	1.2	1.7	1.8	0.6		1.8		4.2	11.9

즉 신선전은 홍산현이 42냥으로 가장 많이 납부하였고, 서천군 34냥, 남포현 24냥, 홍주목·한산군·임천군·비인현 각각 12냥, 결성현·보령현 각각 6냥 등 합계가 160냥이었다. 한편 잡비전은 각 읍의 신선전 징수자·수송자 등에게 지급하였다. 잡비전은 신선전의 0~15%를 거두었으며 총액은 11냥 9전이었다. 잡비전은 1명당 ‘홍주목·서천군 1전씩, 남포현 1전 5푼씩, 한산군·결성현 2전씩, 임천군 3전씩’ 거두었는데, 보령현·비인현은 잡비전을 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還米 80석의 이자 8석과 屯畠 1결 43부 4속 및 屯田 1결 91부의 屯稅도 마량진 재원으로 활용되었다. 둔세는 재해 등으로 해마다 차이가 있으나, 1862년(철종 13) 충청도 평신진은 1결당 畠은 米로 3석 그리고 田은 미 1.5석을 징수하였다. 이것을 참고하면 마량진 둔세는 담은 약 4.302석 그리고 전은 약 2.865석이다. 따라서 환미 이자와 둔세의 합은 약 15.167석이다. 그런데 1896년(고종 33) 『度支部洪州府管下各郡屯田畠改正量案』(奎 19282-v.7)에 의하면 비인현 옛 馬梁鎮屯은 西面·郡內面에 위치하였고, 1895년 택지부의 乙未條陞摠 때 起田은 1.533결(3석 5두 3승락)이고 賭錢은 매 두락당 4전씩 도합 26냥 1전 2푼이며, 起畠은 3.667결(4석 4두 6승락)이고 도전은 매 두락당 2냥씩 도합 169냥 2전이었다.¹⁰⁴⁾ 따라서 1871년 『湖西邑誌』에 비해 1895년 을미승총에서는 비인현 둔토 중 기전은 0.377결 축소된 반면 기답은 2.233결 증가하였고, 담의 세율은 2

103) 『賦役實摠』 2·3책, 忠清道, 홍주·한산·서천·임천·결성·보령·남포·비인·홍산, 營邑捧用秩, 馬梁鎮新選錢(여강출판사 영인본, 1984 『賦役實摠』 상, 72·93·97·124·177·181·184·187·191면).

10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2012 『둔토양안』(조선후기~대한제국기 양안 해설집2), 민속원, 449-450면.

배에서 5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마량진 재정으로 兵糧米·退船價米도 있었다. 1833년 병량미 중 停退米 8석 14두 3승 5작을 제외한 56석 7두 9승 9흡 3작 2리, 그리고 退船價米 중 鎮川으로 이송된 15석을 뺀 1석 14두 2승 2흡 4작 7리 및 耗米 2두 9승 2흡 2작 5리 등 2석 2두 1승 4흡 7작 2리가 확인된다.¹⁰⁵⁾

4. 마량진의 기능

1) 바다의 방어

(1) 왜적·황당선의 침입 방어

마량진은 왜적·황당선의 침입으로부터 沿海 주민들의 생명·재산을 지키고 선박을 보호하는¹⁰⁶⁾ 임무도 담당하였다. 먼저 마량진이 왜적 침입을 방어하는 것과 관련하여 1419년(세종 1) 비인현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1419년 5월 5일倭賊이 충청도 비인현 都豆音串을 침략하였다.¹⁰⁷⁾ 당시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진인 마량진에는 ‘兵船 16척 · 別船 2척 · 無軍船 2척 및 船軍 1,302명’이 배치되었는데,¹⁰⁸⁾ 선군은 2교대이므로 600여 명이 전투에 참가하여 32척의¹⁰⁹⁾ 전함을 거느린 왜적과 맞서 싸웠다. 이 전투에서 萬戶 金成吉은 왜적 고수인 僧 小吾金을

105) 『公忠水營及各邑鎮兵糧米越海糧米退船價米竝錄成冊』(奎 16274).

106) 그러한 사실은 1419년 왜구가 안흥량에서 貢船 9척을 노략질할 때 충청우도 수군도만호 李梅가 근처에 있었으나 겁이 나서 구원하지 않은 죄로 削職充軍된 것(『世宗實錄』 권4, 세종 1년 7월 丁未 · 庚戌 · 乙丑) 등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107) 왜적이 비인현을 침략하여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대마도 정벌의 주요 이유가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장학근, 1984 「鮮初 對明關係와 主權意識: 대외전쟁을 중심으로」 『학술논총』 8,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상태, 1988 「대마도 정벌 고찰」 『군사』 17; 한문종, 1997 「조선초기의 왜구대책과 대마도정벌」 『전북사학』 19 · 20; 이규철, 2009 「1409년 대마도 정벌의 의의와 성과」 『역사와 현실』 74; 김일환, 2012 「세종대 대마도 정벌의 군사적 전개 과정」 『인문과학논총』 32-2, 순천향대학교 등이 참고가 된다.

108) 『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 卷149, 충청도 5책 624면.

109) 충청도관찰사는 5월 7일 첫 번째 飛報에서倭船을 50여 척이라고 했으나, 두 번째 보고에서는 왜선 32척이 우리 병선 7척을 불태웠고 군사도 죽은 자가 太半이라고 하였다(『世宗實錄』 권4, 세종 1년 5월 辛亥). 본고에서는 두 번째 보고가 상세하다고 생각되어 왜선을 32척으로 표기했다.

그리고 아들 金倫은 왜적 3인을 활을 쏘아 죽였다.¹¹⁰⁾ 하지만 김성길이 전투 중에 왜적의 창에 찔려 바다로 떨어지자,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으로 여겨 홀로 싸우다 적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다. 결국 마량진 수군은 왜적에게 패하여 병선 7척이 불태워지고 군병 300여 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포로로 잡혀간 군병도¹¹¹⁾ 있었다. 때문에 전라감사가 왜적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만호 김성길은 술에 취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왜적에게 패했다고 하여, 體覆使에 의해 斬刑을 당하였다.¹¹²⁾ 백성들은 만호 김성길 父子가 왜적을 만나 힘껏 싸웠는데도 함께 죽었다며 매우 슬퍼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海防에서 잘못이 드러난 수군지휘관을 처벌함으로써, 수군지휘관에게 왜적을 적극적으로 격퇴하게 하면서 왜적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려 하였다.

왜적은 바다에서 이긴 기세를 타고 육지로 올라오자, 비인현감 송호생은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수가 부족하여 성으로 들어가 방어하였다.¹¹³⁾ 이에 왜적은 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한 후 공격하여辰時부터午時까지 싸움이 계속되었는데, 성이 거의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知舒川郡事 金閏과 남포진 병마사 오익생이 군병을 이끌고 도착했다.¹¹⁴⁾ 지서천군사는 성의 동쪽에서 나팔을 불면서

110) 『世宗實錄』 권4, 세종 1년 5월 甲寅·辛亥·癸酉.

111) 馬梁浦 선군이었던 문성기가 1419년 왜적에게 포로로 잡혀가 대마도에 억류되었다가 1436년 귀환한 것(『世宗實錄』 권73, 세종 18년 윤6월 乙酉) 등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12) 『世宗實錄』 권4, 세종 1년 5월 甲寅. 여기에서 만호 김성길은 忠淸左道 水軍都萬戶라고 하였다. 하지만 세종대 충청좌도 수군도만호진은 태안군(『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 권149, 충청도, 5책 624면)에 그리고 수군도만호가 수군첨절제사로 바뀐 후 충청우도 수군첨절제사진은 남포현(『新增東國輿地勝覽』 권20, 충청도, 남포현, 關防)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도두음꽃수는 충청우도 첨절제사가 군병을 나누어 지켰던 곳이고, 만호 김성길父子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20, 충청도, 비인현, 關防). 따라서 만호 김성길은 충청우도 수군도만호로 여겨진다.

113) 세종대 비인현에는 侍衛軍 4명, 守護軍 28명, 船軍 57명이 소속되었다(『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 권149, 충청도, 공주목, 비인현, 5책, 631면).

114) 『世宗實錄』 권4, 세종 1년 5월 辛亥; 『世祖實錄』 권6, 세조 3년 2월 己未; 세종대 서천군에는 侍衛軍 9명, 鎮軍 224명(『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 권149, 충청도, 공주목, 서천군, 5책, 631면)이, 남포진에는 留防軍 63명, 鎮屬軍이 300명, 新白丁 39명, 수성군 51명(『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 권149, 충청도, 5책, 624면)이 소속되었다.

그리고 남포진 병마사는 북쪽에 깃발을 세우고 왜적을 공격하여 각각 1명을 죽였고, 비인현감도 성밖으로 나와 왜적 1명을 사로잡자 왜적은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그런데 1419년 5월 7일 충청도관찰사 鄭津이 왜선이 비인현 도두읍곳으로 쳐들어와 조선의 병선을 불태웠다고 보고하자, 상왕인 태종은 충청도의 侍衛牌¹¹⁵⁾ · 別牌¹¹⁶⁾ · 下番甲士¹¹⁷⁾ · 守護軍¹¹⁸⁾을 징집하여 船軍과¹¹⁹⁾ 함께 방비를 엄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¹²⁰⁾ 이어 ‘總制’ 성달생을 경기 · 황해 · 충청도 水軍都處置使에, 상호군 이각을 京畿水軍僉節制使에, 상호군 이사겸을 황해도수군첨절제사에, 前 총제 왕린을 忠清道水軍都節制使에, 해주목사 박령을 겸임시켜 황해도수군절제사에, 일본인이었던 平道全을 忠清道助戰兵馬使에 임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왜적 · 여진족의 침략 등 有事時 병력 동원과 지휘체계의 실태를 잘 보여준다. 첫 번째로 자기 고을을 지키는 수호군과 바다를 방어하는 船軍을 비롯하여 番上하여 侍衛를 담당하는 시위페 · 별페 · 갑사도 충청도 방어에 동원한 것에서, 유사시 병력 동원은 해당 지역 지방군은 물론이고 중앙군도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유사시 군사지휘체계가 평상시와 다른 것도 주목되는데, 경기 · 황

115) 侍衛牌(侍衛軍)는 12번으로 나눠 1년에 1달 복무하였고(『世宗實錄』 권48, 세종 12년 5월 乙卯), 충청도 侍衛牌 200여 인이 변상하여 시위를 담당한 것(『世宗實錄』 권104, 세종 26년 4월 丁未)이 확인된다. 따라서 1419년 징집 가능한 충청도 시위군 수는 2,200여 명으로 추정된다.

116) 別牌는 1414년 충청도에 700명이 설치되었는데(『太宗實錄』 권28, 태종 14년 11월 庚申), 달마다 番上하여 侍衛를 담당하였다(『太宗實錄』 권35, 태종 18년 1월 甲子). 따라서 1419년 징집이 가능한 충청도 별페는 정원 700명에서 변상한 60여 명을 제외한 숫자로 생각된다.

117) 甲士는 1418년 2,000명이고(『世宗實錄』 권72, 세종 18년 5월 丁亥) 2교대였다. 따라서 下番甲士는 1,000명인데, 충청도 갑사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갑사에 대해서는 김종수, 2003 『조선후기 중앙군체연구: 훈련도감의 설립과 사회변동』, 혜안, 21-71면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118) 1426년 비인현 前 守護軍 152명에 5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4番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世宗實錄』 권31, 세종 8년 1월 己酉). 따라서 1419년 비인현 수호군은 152명으로 추정된다.

119) 세종대 충청도 船軍은 우도수군도만도진 1,302명을 비롯하여 8,300명이었고, 도안무처치사 진에는 船直 114명도 설치되었다(『世宗實錄地理志』 『世宗實錄』 권149, 충청도 5책 624면).

120) 『世宗實錄』 권4, 세종 1년 5월 辛亥.

해·충청도 수군도처치사 및 助戰兵馬使의 파견이 바로 그것이다. 삼도수군도처시사는 세종대 충청도 수군의 최고지휘관인 도안무처치사보다 상위 직책이고, 왜적·여진족의 침략 등 유사시에 중앙에서 파견되는 지휘관이 조전병마사이기 때문이다.¹²¹⁾ 따라서 유사시 충청도 수군·육군의 지휘체계는 평상시와 다르게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수군도만호는 1466년 관제개편에 따라 수군첨절제사로 바뀌었는데, 경기·황해도에 수군첨절제사가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1419년 당시에는 수군지휘관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마량진이 황당선 침입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1544년(중종 39) 남포현 사례를 살펴보자. 6월에 큰 황당선 1척이 남포현 황죽도에 이르렀는데, 첨사 정세린은 이 배를 왜적이 탄 배로 판단하여 화포·활을 쏘아 쫓아내면서 1명을 체포하였다.¹²²⁾ 그런데 도망갔던 당선은 7월에 태안군에 도착하였고, 중국인 150여 명 중 일부는 군수의 설득으로 배에서 내려와 표류민으로 대우를 받았다.¹²³⁾ 하지만 나머지 중국인은 충청도 수사·우후가 軍威를 갖추고 출동하자 놀라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¹²⁴⁾ 이들은 8월에 전라도 영광 성이도에서 동복현감·법성포 만호가 이끄는 조선군과 전투를 벌였다. 즉 '唐人 30여 명이 작은 배를 타고 화포를 쏘면서 돌격하고, 산 위에서는 불거나 흰 두건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기를 흔들고 북을 치면서 화포를 쏘아 협공하였다. 이 싸움에서 조선군은 폐배하여 동복현감 휘하의 군병 7명이 잡혀가고 병선 1척은 불태워지고 1척은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당선은 성이도에 정박하여 익은 밭곡식을 베어 실은 뒤 쌍돛을 높이 세우고 서쪽 큰 바다로 떠나갔다.'¹²⁵⁾

이에 사헌부는 남포현·태안군에 도착한 황당선은 軍器를 신고 양식을 뺏으며 사람을 살해했는데,¹²⁶⁾ 倭奴가 교활하게 중국 배처럼 꾸미고 近境에 들어오면 누

121) 태종대에 倭寇를 격퇴하기 위해 左軍僉摠制 신유정을 江原道助戰兵馬使(『太宗實錄』 권 6, 태종 3년 7월 乙巳)로,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해 첨총제 노원식을 慶源助戰兵馬使(『太宗實錄』 권19, 태종 10년 4월 己未)로 파견한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122) 『中宗實錄』 권103, 중종 39년 6월 辛卯.

123) 『中宗實錄』 권104, 중종 39년 8월 丁卯·己卯·庚寅.

124) 『中宗實錄』 권103, 중종 39년 8월 戊辰.

125) 『中宗實錄』 권104, 중종 39년 8월 辛未·戊寅.

126) 1544년 7월 大船 1척과 小船 2척의 황당선에 탄 100여 명이, 충청도 韓山 鹽干 8인이 소

구 배인지 의심할 때 도륙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 수사·우후가 軍威를 갖추어 중국인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推考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¹²⁷⁾ 아울러 예조는 ‘배에 남았던 唐人들이 저희 무리가 태안군수의 설득으로 잡힌 것을 분하게 여겨 近境을 방황하다가 방비가 허술한 곳을 습격하여, 사람을 잡아가 살해하고 곡식을 빼어 식량에 보탰다. 때문에 연해 군현이 소란스럽고 피해가 커는데, 중국인에게 弓矢를 사용하지 않아 모욕을 당했으니 부득이한 경우 궁시를 사용하자’고 하였다.¹²⁸⁾ 이어 판중추부사 송흠이 상소를 올려 ‘唐船은 표류했다고 하나 도적질에 마음이 없다면 왜 화포를 많이 갖추고 걸핏하면 사람을 傷害하며, 표류민이라면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고 위험한 말을 하여 두렵게 하겠는가? 唐船·변방 일에 대비하려면 당선처럼 반드시 板子로 막아 배를 만들고, 화포·弓箭·창검 등을 수시로 단련하여 有備無患하며, 才德이 장수가 될 만한 자를 선발하고, 군졸은 몸이 튼튼하거나 활을 짤 쏘는 자를 뽑되 후자는 잡역을 면제시켜 갑작스러운 때에 활용하자’고 하였다.¹²⁹⁾ 그러자 中宗은 당선·왜선이 와서 변경을 침범하면 바다 가운데에서 만나더라도 도적의 배로 여겨 잡으라고 각도에 명령하였다.

(2) 표류민·이양선에 대한 감시·조사·보고

먼저 마량진의 표류민의¹³⁰⁾ 감시·조사·보고에 대해 살펴보자. 1544년 7월 충

금을 싣고 황해도로 가던 배를 馬梁에서 약탈하였다(『中宗實錄』 권104, 중종 39년 7월 壬寅). 이 사건은 승선인원이나 발생 시기로 볼 때 남포현에서 쫓겨난 황당선이 저지른 소행으로 여겨진다.

127) 『中宗實錄』 권103, 중종 39년 8월 戊辰.

128) 『中宗實錄』 권104, 중종 39년 8월 己卯.

129) 『中宗實錄』 권104, 중종 39년 9월 甲辰.

130) 조선시대 표류민에 대해서는 이훈, 2000『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한일 관계사학회, 2001『조선시대 한일표류민연구』, 국학자료원: 김경옥, 2008『18~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漂到民들의 추이: 『備邊司臘錄』『問情別單』을 중심으로』『조선시대사학보』 44; 김경옥, 2014『조선의 대청관계와 서해해역에 표류한 중국 사람들』『한일관계사연구』 49; 원종민, 2008『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중국학연구』 44; 원종민, 2011『운곡잡지를 통해 본 조선후기 표류 중국인에 대한 구조활동』『중국학연구』 58; 정민, 2009『다산의 해방고에서 나타나는 중국 표선 처리문제』『한국학논총』 4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현규, 2013『1880년 조선 비인현에 표착한 潮州·泰國 상인의 표류사

청도 태안군에 도착했을 때 표류선으로 간주된 황당선이, 이미 6월에 남포현 황죽도 근처에도 이르렀다.¹³¹⁾ 하지만 첨사는 이 배를 賊倭이 탄 배로 여겨 쫓아냈다. 이것을 제외하면 마량진이 남포현에 있었을 때에는 관할 구역에 표류선이 이르렀다는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반면 마량진이 비인현으로 이전한 후에는 마량진 관련 표류민 자료가 많이 나타난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9>과 같다.

<표 9> 마량진 관할 지역 바다에 도착한 표류민 관련 내용¹³²⁾

도착한 해	도착 장소	국적	승선 인원수	표류 원인	항해 목적	편의 제공	귀환로
1794년 ¹³³⁾ (정조 18)	마량진 앞바다	淸	51명	바람, 큰 물결	고기 잡이, 무역	留宿處, 옷, 供饋	육로
1816년 ¹³⁴⁾ (순조 16)	마량진 葛申 아래	英國 (英吉利國)	* 작은 배 약 80~90명 *큰 배(작은 배 몇 배)		해도 작성		서북풍이 불자 넓은 바다로 도망
1819년 ¹³⁵⁾ (순조 19)	마량진 烟島 앞바다	일본	25명			연해 여러 고을의 배로 등래까지 일본인을 짐과 함께 실어다 줌	수로
1880년 ¹³⁶⁾ (고종 17)	비인현 都屯浦, 마량진	* 9명:淸 * 18명 泰國 (暹羅國)	27명		行商	옷과 음식 제공, 가지고 있는 什物은 刷馬로 운반해 줌	육로
1882년 ¹³⁷⁾ (고종 19)	마량진	* 15명: 중국인(淸) * 1명: 화란인 (紅毛國人)	16명			튼튼한 배, 식량	수로(대다수가 水疾로 인해 육로 귀환 원함)

정과 교역활동」『도서문화』 42: 王天泉, 2016 『朝鮮의 中國漂流民 송환 방식 변화와 清初 동아시아 해역』,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131) 『中宗實錄』 권103, 중종 39년 6월 辛卯.

132) <표 8>은 정조대 · 순조대 · 고종대 마량진에 표류한 중국인 · 일본인 등에 대한 내용을 『조선왕조실록』 · 『備邊司謄錄』 · 『承政院日記』 · 『日省錄』 등을 통해 정리한 것이다.

133) 『正祖實錄』 권41, 정조 18년 11월 己丑: 『備邊司謄錄』 정조 18년 10월 27일; 11월 7일: 11월 11일: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10월 27일(辛巳); 11월 7일(辛卯); 11월 11일(乙未); 『日省錄』 정조 18년 10월 27 · 28일; 11월 5 · 7 · 11 · 12일.

134) 『純祖實錄』 권19, 순조 16년 7월 丙寅: 『承政院日記』 순조 16년 7월 20일(丁卯); 8월

즉 표류선은 정조대부터 고종대까지 마량진 관할 구역에 5회 도착하였는데, ‘정조대 1회, 순조대 2회, 고종대 2회’였다. 도착장소는 ‘마량진 2회, 마량진 앞바다·마량진 갈곶 아래·마량진 연도 앞바다·비인현 도둔포 각각 1회’였는데, 1880년 표류선은 비인현 도둔포와 마량진 두 곳에 이르렀다. 표류민 국적은 清·日本·英國·泰國(暹羅國)·和蘭(紅毛國) 등이었고, 승선 인원은 적계는 16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었으며, 표류 원인은 1794년은 바람·큰 물결이나 나머지 4회는 알 수 없었다. 항해 목적은 ‘고기잡이·무역 1회, 해도 작성 1회, 行商 1회’였으며, 나머지 2회는 알 수 없었다. 편의 제공은 표류민에게 留宿處·옷·식량·배를 제공하고 그들의 물건을 실어다 주는 것 등이었다. 귀환로는 육로와 수로가 각각 2회였는데, 1816년 영국 표류선은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서북풍이 불자 갑자기 煙島 밖 넓은 바다로 달아났다.

마량진의 표류민에 대한 감시·조사·보고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첨사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첨사는 표류선이 도착하면 신속하게 표류선으로 가서 問情을 한 후 그 내용을 감사·수사에게 嘻報하였다. 실제로 1794년 첨사는 표류선에 가서 글자로 물어 표류민은 大清 登州府 黃縣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점 등을 감사에게 보고하였다.¹³⁸⁾ 이에 감사는 ‘제반 상황이 논리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점, 문정을 기다리지 않고 표류민을 육지에 내리게 한 점, 첨보가 지체된 점’ 등을 이유로 첨사를 엄히 곤장을 쳐서 징계하려 하며, 문정이 급하니 한학 역관 1員을 보내달라는 장계를 국왕에게 올렸다. 그러자 국왕은 역관이 내려가기 전에

-
- 29일(乙巳): 9월 3일(己酉): 『日省錄』 순조 16년 7월 19일: 8월 29일: 9월 3일.
 135) 『備邊司謄錄』 순조 19년 7월 5일: 7월 19일: 『承政院日記』 순조 19년 7월 6일(丙寅)·19일(己卯): 『日省錄』 순조 19년 7월 6·19일.
 136) 『高宗實錄』 권17, 고종 17년 10월 甲寅: 『備邊司謄錄』 고종 17년 10월 19일: 11월 5일: 11월 9일: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10월 19일(甲寅): 『日省錄』 고종 17년 10월 19일. 그런데 10월 19일과 11월 5일 기록과 달리, 11월 9일 『備邊司謄錄』의 弘濟院 問情에서 는 중국인은 1명 늘어난 10명이고 태국인은 1명 줄어든 17명이었다(박현규, 2013 「1880년 조선 비인현에 표착한 潮州·泰國 상인의 표류사정과 교역활동」 『도서문화』 42, 139-140면).
 137) 『高宗實錄』 권19, 고종 19년 1월 丙辰: 『備邊司謄錄』 고종 19년 1월 28일: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1월 29일(丙辰).
 138) 『日省錄』 정조 18년 10월 27일.

지방관·우후에게 문정을 한 다음, 배가 완전하고 바람이 順便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돌려보낸 후 장계를 올리라고 道臣·帥臣에게 분부하였다. 이에 첨사는 글자로 문정을 하여 표류민은 '중국인, 표류 원인은 바람·파도, 항해 목적은 고기잡이·무역, 10월 20일 황현에서 출발 후 서풍 만남, 승선 인원수 51인(남 44인·여 4인·아이 3인, 船人 7인·空客 44인), 공객은 무역·賣買나 농사일로 일시적으로 배를 탄 사람' 등을 알아내 감사에게 첩정하였다.¹³⁹⁾ 이어 첨사는 우후·비인현감과 함께 京譯官의 표류민 문정 내용인¹⁴⁰⁾ '표류민 건강상태, 육로 귀환을 원함' 등도 감사에게 보고하였다.¹⁴¹⁾

1816년 2척의 영국 표류선이¹⁴²⁾ 마량진 갈곶 밑에 도착했을 때에도 첨사는 비인현감과 함께 표류선에 가서 한문·언문으로 問情을 시도한 후, '의사소통이 안된 점, 책 3권을 받은 것, 영국인의 모자·옷·책, 대장간, 영국 배가 달아난 상황' 등을 충청수사에게 보고하였다.¹⁴³⁾ 이에 수사는 영국 배 2척이 육지 가까이 있었으므로 사람·선박을 많이 동원하여 힘을 다했으면 예인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바다에 머물게 하여 결국 도망가도록 방치한 첨사 조대복과 비인현감 이승렬을 파출한 후 죄상을 조사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파직된 후 의금부에 잡혀갔다.¹⁴⁴⁾ 前 첨사 조대복은 '언어가 不通하여 문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異國船이 바람이 일자 날아가듯 떠났으므로 피폐한 鎮으로 써는 억류시킬 방도가 없었다'고 변명하였다.¹⁴⁵⁾ 하지만 의금부가 異國船을 문정하지 못하고

139) 『日省錄』 정조 18년 10월 28일.

140) 『備邊司詹錄』 정조 18년 11월 7일.

141) 『日省錄』 정조 18년 11월 5일.

142) 영국 배 중 큰 배는 38포문 프리깃함 알세스트호로 1816년 通商을 확대하려 온 遣清使節團 호송 선단 사령관 맥스웰 대령이 그리고 작은 배는 10포문 슬루프형 범선 리라호로 바실 흄 대령이 이끌었는데, 애머스트 대사 일행이 황제를 알현하려 북경에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조선 서해안 해도를 작성하려 온 것이다(김원모, 2004 「19세기 韓英 航海文化交流와 조선의 海禁政策」 『문화사학』 21, 971-977면; 허호익, 앞의 책, 135-158면). 한편 허호익은 알세스트호 선상에서 맥스웰 대령이 영어성경을 첨사에게 준 것을 근거로, 마량진이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라고 보았다.

143) 『純祖實錄』 권19, 순조 16년 7월 19일 丙寅; 『日省錄』 순조 16년 7월 19일.

144) 『日省錄』 순조 32년 7월 19일; 『承政院日記』 순조 16년 7월 20일(정묘).

놓친 것은 어쩔 수 없으나 邊境을 소홀이 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조대복은 告身을 박탈당하고 곤장 80대는 돈으로 대신 납부하는 등의 처벌을 받았다.¹⁴⁶⁾

두 번째로 마량진 장교·아전은 표류민을 보호·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표류선이 도착하면 사람·배를 동원하여 마량진으로 끌어온 다음, 표류민을 배에서 내리게 하고 머무를 곳과 음식 등을 제공하였다. 그런 다음 1794년처럼 장교와 아전에게 표류민의 留宿處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표류민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표류민의 도망·약탈 및 인근 주민과의 싸움·거래 등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한편 표류민은 육로나 수로로 귀환하였다. 1794년 중국 표류민은 동남풍이 불지 않아, 1880년 중국·태국 표류민은 배가 심하게 파손되어 육로로 귀환하였다.¹⁴⁷⁾ 1794년 중국 표류민의 배는 불태웠고 물건은 刷馬로 운반해 주었다. 마량진에 파견된 京譯官이 표류민을 서울까지 인솔하되 差員을 정해 沿路의 供饋를 담당하고 雜人 접근도 금지시켰고, 서울에서 표류민은 弘濟院에 묶으면서 비변사 낭청·역관으로부터 추가로 問情을 받은 후 옷을 제공받았다. 이어 경역관이¹⁴⁸⁾ 표류민을 인솔하여 그리고 槐院에서 지은 咨文은 별도로 정한 禁軍이 말을 타고 가서, 灣上(의주)의 동지사 일행에게 인계하였다.¹⁴⁹⁾ 원래 그 역할은 咨官이나 의주 譯學이 鳳城까지 담당했으나,¹⁵⁰⁾ 동지사 일행이 마침 의주에 있었으므로 대신 수행한 것이다. 1880년의 경우 마량진에 京譯官을 보내지 않았으나, 그 외 내용은 1794년과 유사하였다.¹⁵¹⁾

145) 『承政院日記』 순조 16년 8월 29일(乙巳): 『日省錄』 순조 16년 8월 29일.

146) 『承政院日記』 순조 16년 9월 3일(己酉): 『日省錄』 순조 16년 9월 3일.

147) 『高宗實錄』 권17, 고종 17년 10월 甲寅: 『備邊司贍錄』 고종 17년 10월 19일: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10월 19일(甲寅): 『日省錄』 고종 17년 10월 19일.

148) 정조는 마량진에서 인솔해온 備郎이 표류민을 의주까지 데려가라고 하였는데, 마량진에서 서울로 표류민을 인솔해온 관리는 경역관이므로 비랑 대신 경역관으로 표기하였다.

149) 『備邊司贍錄』 정조 18년 11월 7·11일: 『承政院日記』 정조 18년 11월 7일(辛卯)·11일(乙未): 『日省錄』 정조 18년 11월 7·11일.

150) 『萬機要覽』 軍政篇1 備邊司 “漂漢人從陸送還者 內地人則別定咨官領送 若外人則灣府譯學令付鳳城 咨文定禁軍下送灣府”

151) 『高宗實錄』 권17, 고종 17년 10월 甲寅: 『備邊司贍錄』 고종 17년 10월 19일: 『承政院日記』 고종 17년 10월 19일(甲寅): 『日省錄』 고종 17년 10월 19일.

반면 1819년과 1882년 표류민은 수로로 되돌아갔다. 표류민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귀환시켰지만¹⁵²⁾ 일본 표류민은 표류선이 도착한 곳에서 倭館이 위치한 동래부까지 수로로 데려다 주는 것이 관행이었다.¹⁵³⁾ 때문에 1819년 일본 표류민은 부서진 배를 수리하기 어려워 육로 귀환을 원했지만 허가되지 않고, 연해 고을에서 완전한 배로 차례로 건네주되 부근 수령이나 邊將을 差員으로 정하여 인솔하게 하였다. 아울러 일본 표류민이 타고 온 배는 그들 앞에서 불태우되, 짐은 배로 실어다 주었다. 1882년 중국·화란 표류민은 처음에는 수로로 되돌아간다고 했다가 水疾이 많아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이미 수로로 돌아간다고 중국에 자문에 보냈으므로 변경할 수 없어 튼튼한 배를 골라 차원을 정한 다음 바람을 기다려서 떠날 때 식량·반찬을 지급하도록 하였다.¹⁵⁴⁾

다음으로 이양선에 대한 감시·조사·보고에 대해 살펴보자. 마량진의 요망·후망감졸은 이양선의 출물을 감시한 후 첨사에게 보고하였고, 첨사는 요망·후망감졸의 보고 사항과 함께 이양선에 가서 문정을 한 내용을 관찰사에게 첨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1894년(고종 31) 7월 7일 瞭望監卒 유덕윤·장여홍 등은 已時경 이양선 30척이 갑자기 전라도 群山 바깥 바다에서 연이어 올라오다가 마량진 앞 烟島 뒤쪽 바다로 향했으며, 마량진에서 까마득하게 먼 곳에서 갑자기 지나갔다고 첨사에게 보고하였다.¹⁵⁵⁾ 이에 첨사는 자신이 재빨리 요망감졸이 망을 보는 군막에 올라갔으나, 이상한 기선이 검은 연기를 내뿜어 배의 수를 알 수 없고 間情도 못한 것 등을 관찰사에게 講呈하였다. 그러자 관찰사는 첨사의 첨정 내용과 첨사에게 이후 상황을 자세히 살펴 빨리 보고하라는 지시 사항 등을 담은 장계를 임금에게 올렸다. 그런데 요망감졸이 마량진에서 까마득하게 먼 곳에서 이양선이 지나갔다고 한 것이나 첨사가 재빨리 망을 보는 군막에 올라갔다는 것을 통해, 요망감졸은 앞이 탁 트이고 높은 곳에서 이양선의 동태를 살폈음을 짐

152) 『萬機要覽』軍政篇1 備邊司 “異國人漂到狀啓入來 水陸間從自願還送之意 覆啓知委”

153) 『備邊司謄錄』순조 19년 7월 19일; 『承政院日記』순조 19년 7월 19일(己卯); 『日省錄』순조 19년 7월 19일.

154) 『高宗實錄』권19, 고종 19년 1월丙辰: 『備邊司謄錄』고종 19년 1월 28일: 『承政院日記』고종 19년 1월 29일(丙辰).

155) 『錦蕃集略』別啓 1894년 7월 15일.

작할 수 있다. 실제로 소근진에는 의황리 · 관송리에 荒唐船 去來를 살펴보는 요망봉이 설치되었고,¹⁵⁶⁾ 안흥진에도 이양선의 출몰을 감시하는 候望監官이 있었으며,¹⁵⁷⁾ 평신진에서는 신선전 120냥을 瞭望軍 30명급에게 지급하였다.¹⁵⁸⁾

두 번째로 1894년 7월 26일 候望監卒 爰才局 · 金召成 등은 3개 뜬을 단 異樣輪船 1척이 서쪽과 북쪽 바다에서 내려와서 본진 烟島의 안쪽 바다에 떠 있다고 첨사에게 보고하였다.¹⁵⁹⁾ 이에 첨사는 이양선에 가서 問情을 한 후 ‘청나라 선박이 황제 명령으로 연해를 두루 살피기 위해 왔으며, 첨사의 물음에 답변한 사람의 성명은 張要插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승선 인원은 上將 1員 · 小將 6員 · 下將 5員 · 軍兵 100명이고, 그들이 요청한 대로 닦 수십 마리를 구하여 보내 주었더니 값은 제대로 보내왔으며, 그 후 저들 배는 곧바로 북쪽을 향하여 올라갔다’고 충청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관찰사는 첨사가 보낸 침정 내용과 첨사에게 이후 상황을 살펴 연속해서 빨리 보고하라 한 것 등을 기재한 장계를 임금에게 올렸다.

2) 조세선 호송

조세선 호송의 목표는 해적의 약탈로부터 곡물 · 선원을 지키고,¹⁶⁰⁾ 특히 뱃길을 잘 인도하여 조세선이 침몰되지 않고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

156) 『湖西邑誌』 14책, 泰安 所斤鎮鎮誌(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8: 충청도②』, 아세아문화사, 676면).

157) 『備邊司詹錄』 철종 7년 7월 26일.

158) 『賦役實攤』 3책, 忠淸道 平薪 本鎮捧用秩 新選錢(여강출판사 영인본, 1984 『賦役實攤』 上, 평신, 255면).

159) 『錦蕃集略』 別啓 1894년 7월 26일.

160) 때문에 마량첨사는 해적의 약탈로부터 조세선을 보호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았다. 실제로 1406년 충청우도 수군첨절제사의前身인 수군도만호가 조세선을 해적에게 약탈당하여 곤장을 맞았다(『太宗實錄』 권14, 태종 6년 4월 辛未). 아울러 1640년(인조 40) 군량미를 실은 선박이 비인현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홍원곶 앞바다에서 겹은 옷에 唐帽를 쓰고 낫이나 긴 창을 든 해적 2백여 명에게 군량미를 모두 빼앗기자, 마량첨사 김극겸은漕船이 지나갈 때 망을 보고 수색하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여 의금부에 짚혀와 심문을 당한 후 파직되었다[『仁祖實錄』 권40, 인조 18년 윤1월 壬寅: 『承政院日記』 인조 18년 윤1월 23일(乙巳)].

는 것이다. 따라서 마량진의 조세선 호송에서도 指路護送이 강조되었는데, 태안군 海路를 태안군·안흥진·소근진이 셋으로 나눈 것처럼¹⁶¹⁾ 마량진도 1655년 이전에는 남포현과 그리고 1655년 이후에는 비인현과 해당 고을의 바닷길을 나눠 지로호송을 담당하였다.¹⁶²⁾ 그런데 마량진 관련 조세선 호송 관련 자료는 18세기 후반 이후 그리고 내용은 조세선 침몰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조세선 침몰 처리 관련 마량진의 역할·처벌을 통해 마량진의 조세선 호송 기능을 파악해보려 한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조세선 침몰 처리 관련 마량진의 역할·처벌¹⁶³⁾

연도	침몰 장소	실은 물건	조세선 침몰 처리 관련 마량진의 역할·처벌
1792년 ¹⁶⁴⁾	馬梁鎮 烏力島 뒷바다	경상도 左漕倉 소속 거제 영자선 1척 및 웅천 일자선 1척이 戶曹에 납부할 米太 2,111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조창 潛船 2척이 윤4월 22일 마량진 烏力島 뒤 바다에서 침몰 * 馬梁僉使는 조세선 침몰·곡식을 견진 상황 등을 忠淸監司에게 告呈. * 監司는 마량진에게 곡물·의사자를 견지고 표류 선박을 찾는 일을 엄하게 신칙하고, 침몰 조세선 곡물을 견저낼 차사원으로 홍산현감을 임명함. * 호송지방관 마량첨사가 潛船이 무턱대고 전진하도록 방치한 죄로 罷黜 뒤 의금부에서 신문. 指路를 담당한 호송監色을 감영에서 엄하게 刑推. * 米 84석·太 66석을 견짐. 空石은 1,010立. 의사자 1명은 견지지 못함.

161) 『日省錄』 정조 17년 6월 23일: 서태원, 2013b 앞의 논문, 144-145면.

162) <그림 1> 비인현·남포현 경계에서 남포현쪽 약간 위에 黃竹(黃竹島)이 그리고 비인현·서천군 경계에서 서천군쪽 약간 아래에 獐(獐島)이 위치하였고, 馬梁(마량진) 바로 아래 烏力(烏力島) 뒷바다에서 1792년 조세선이 치폐하자 첨사가 처벌받았다. 따라서 마량진의 지로호송 구역은 오력도 뒷바다부터 남포현 황죽도 앞바다까지, 비인현은 서천군 장도 윗바다부터 오력도 앞바다까지로 추측된다. 아울러 태안군 황서 앞바다 조세선 침몰 때 마량첨사가 처벌을 받았고 황서 위 冠丈(관장항)부터 수원 풍도까지는 소근첨사와 평신첨사가 1년씩 교대로 영호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마량첨사가 호송차사원일 때 지로호송 구역은 오력도 뒷바다부터 태안군 황서까지로 추정된다.

163) <표 9>은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에 나와 있는 조세선 침몰 처리 관련 마량진의 역할·처벌 등을 정리한 것이다.

1810년 <small>165)</small>	마량진 뒷바다	충청도 노성현 조세 선이戶曹·宣 惠廳·禁衛營 에 남부할 米 1,146석 1 두 및 雜費米 210석 14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성현 潜船 1척이 10월 23일 밤 마량진 後洋에서 敷敗. * 호송지방관 마량첨사는 평상시 檢飭을 잘못으로 감영에서 곤장을 맞고, 護送監色도 救護를 잘못한 죄로 감영이 嚴刑定配. * 裝載官 노성현감은 稅穀을 10월에 포장하여 출발. 의금부에서 拿聞. * 田稅의 過限·晚裝을 살피지 못한 잘못 등으로 충청감사 推考. * 어두울 때 출발, 작완축미 5석 등 못 건진 미가 1,312석으로 너무 많음. 비인현 옥에 갇힌 藍色·沙格 등을 엄형을 가해 사설을 밝힐 것. * 건진 米 50석 중 完米 38석, 不完米 12석(作完 7석). 完米 합계 45석을 서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
1814년 <small>166)</small>	충청도 庇仁縣 烟島 뒷바다	경상도 우조 창 오자선(진 주 등)이 호 조·선혜청에 남부할 米· 太 1,244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조창 吳字船 1척이 3월 29일 비인현 烟島 上洋에서 獵風으로 敷敗. * 마량첨사는 조세선이 敷敗된 장소를 찾지 못했으나, 원래 정한 差員이 아니므로 죄를 논하지 않음. * 못 건진 米 1,091석과 太 115석은 潛船 監官·沙格에게 징수. * 洪陽에서 건져낸 米 중 完米 38석, 不完米 4석(作完 1두). 38석 1두를 홍양 백성에게 나누어 준 뒤, 劣米처럼 가을에 錢으로 上納하게 함.
1817년 <small>167)</small>	마량진 村前 浦口	전라도 해남 현 조세선 1 척이 각 衛門 에 남부할 米 1,565석 6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현 조세선 1척이 風濤로 6월 29일 마량진 村前浦口에서 敷敗. * 호송지방관 마량첨사는 성실히 호송하지 않은 죄로, 감영에서 곤장을 맞음. 護送監色도 指路護送을 잘못하였으므로 嚴刑으로 重하게 다스림. * 穀主官 해남현감은 곡식을 초과하여 실음. 의금부에서 심문. 敗船의 藍色·沙格을 비인현 옥에 가두고 嚴罰하여 作奸의 실정을 밝히도록 함. * 卸下米 1,365석을 비인현, 서천군, 남포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 * 改色하여 나눠준 곡물과 劣米는 가을에 錢으로 상납.
1820년 <small>168)</small>	마량진 葛串	경상도 밀양부 가 진흘청·壽 進宮에 남부 할 米 1,016석 2두 3승 및 統營이 京營 에 남부할 加 時木 9개·槍 柄木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양부 宙字潛船 1척이 5월 5일 비인현 갈곶에서 隱嶼에 걸려 치폐. * 호송지방관 마량첨사는 左倉 潛船을 護送하러 갔지만, 臭 載가 掌內에서 발생. 감영에서 곤장을 침. 護送監色은 舉行이 심히 소홀. 從重科治. * 조세선 17척 중 1척만 隱嶼에 걸린 것은 의심스럽고, 건진 곡물도 미흡. 敗船 色吏·沙格을 비인현 옥에 가두고 엄히 조사. * 건져낸 完米는 540석, 不完米는 140석(作完 63석). 完米 603석을 비인현 백성에게 나누어 줌. 작완축미 77석, 空石 22 立, 못 건진 米 44석 2두 3승을 합한 143석 2두 3승을, 敗船의 色吏·沙格 등에게 分徵.

			* 건져낸 곡물 중 백성에게 나누어 준 것과劣米는 가을에 錢으로 상납.
1826년 ¹⁶⁹⁾	태안 앞바다	경상도 의령 현 등이 호 조 · 선 해 청 등에 납부할 米太 1,086석 14두 6승 1홉 8작	* 左漕倉 張字船이 落後로 인해 4월 28일 태안 앞바다에서 覆沒. * 호송차사원 마량첨사는 指護를 성실히 안함. 감영에서 곤 장 맞음. * 건져낸 完米 623석, 不完米 302석(作完 223석), 不完太 25 석(作完 10석). '作完縮米 79석, 空石 30立, 未拯太 89석 7두 8승 6홉 4작, 作完縮太 15석, 空石 30立'은 未拯에 해당됨. 미 618석 · 태 5석은 태안군 백성에게, 미 228석 · 태 5석은 서산 군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가을에 錢으로 상납.
1833년 ¹⁷⁰⁾	마량진 호송 경내	부안현이 선혜청 · 糧餉 廳 등에 납부할 米 · 太 1,363석 2두 1승과 비 변사 · 훈련도 감에 각각 납 부할 箭竹 5部	* 부안현이 납부할 米 · 太 등을 실은 조세선 1척 風 · 雨 · 細 蹲嶼로 3월 24일 마량진 경내에서 故敗. 稅船 침몰이 掌内에 서 발생. * 호송지방관 마량첨사는 평상시 不飭함. 감영에서 곤장 때려 경계. 호송감색은 경내에서 指護 절차가 거의 끝났을 때 갑자기 바람을 만나 역으로 掌内에 표류했다고 하지만 중하게 죄를 심리하여 처단. * 未拯米太가 많음. 故船 감색 · 사격을 비인현 옥에 가두고 엄히 심문. 拯米 중 完米 671석, 不完米 180석(作完 93석). 拯 太 중 完太 30석, 不完太 20석(작완태 10석). 완미 472석은 비 인현, 292석은 서천군 백성에게 分俵. * 율해 흥년이 심함. 비인 · 서천백성에게 나눠준 米太는 내년 가을에 거둠.
1842년 ¹⁷¹⁾	태안군 近西面 안흥 黃嶼 앞바다	전라도 聖堂倉 漕船 1척이 선 혜 정 · 금 위 영 · 균역청 등 에 납부할 米 · 太 1,409석 8두 1승	* 聖堂倉 漕船이 9월 26일 바람이 불 때 항해하다가 安興에서 치폐. * 호송차사원 마량첨사는 領護를 불성실하게 함. 감영에서 곤 장을 침. * 건진 米 중에서 完米 348석, 不完米 383석(作完 174석). 空 石 332立. 건진 不完太 3석(作完 1석). 완미 522석 · 완태 1석 을 태안군 백성에게 나눠 줌. 작완축 米 · 太와 공석은 未拯. 실제 못 건진 미 880석 3두 · 태 6석 4두 중 船人犯用米를 뗀 미 · 태 844석 8두를 감색 · 사격에게 分徵. * 영운차사원은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을 잘못. 嚴棍하여 징계.

164) 『正祖實錄』 권34, 정조 16년 윤4월 丙申: 『備邊司謄錄』 정조 16년 윤4월 28일: 『承政院日記』 정조 16년 윤4월 28일(丙申), 윤4월 29일(丁酉), 5월 3일(庚子), 6월 4일(辛未); 『日省錄』 정조 16년 윤4월 28일, 29일, 5월 3일, 6월 4일.

165) 『日省錄』 순조 10년 12월 25일.

166) 『日省錄』 순조 14년 4월 10일; 『日省錄』 순조 14년 6월 2일.

167) 『日省錄』 순조 17년 7월 24일.

168) 『日省錄』 순조 20년 6월 1일.

169) 『日省錄』 순조 26년 5월 25일.

1844년 ¹⁷²⁾	萬字船 1척 홍주 插時島 앞바다 恒字船 1척 홍주 吉山島 앞바다	聖堂倉 만자 선 1척이 廣興 倉 別營과 糧 餉廳에 남부할 米 1,137석 * 항자선 1척이 廣興倉 別營과 糧餉廳에 남부 할 米 太 1,153 석 9두 9승	<p>* 4월 1일 萬字船 1척 홍주 삽시도 앞바다에서 바람·비·파도로 치폐. : 호송차사원 마량첨사는 불성실하게 호송. 감영에서 곤장을 맞음. : 전진 米 중에서 完米 695석을 홍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줌. 涵米 중 改色하여 백성에게 나누어 준 것과 劣米는 가을에 錢으로 상납. : 未拯米 442석 7두 5승은 漕船의 監官·沙格 등에게 分徵. : 未拯·不完·空石의 수가 너무 많음. 敗船의 監官·沙格 등을 홍주옥에 가두고 엄형을 가하여 사실을 자세히 밝히도록 함. * 4월 1일 항자선 1척이 홍주 길산도 앞바다에서 바람·비로致敗. : 호송차사원 치별, 백성에게 나눠 준 完米 및 劣米의 상납과 未拯米의 징수 방식 등은 삽시도 앞바다 침몰선과 같음.</p>
1867년 ¹⁷³⁾	태안 경내 竹島 後洋	左漕倉 선박 1척이 선 해청에 남부할 丙寅條 大同米 1,045석	<p>* 左漕倉 선박 1척이 5월 18일 태안경내 竹島 後洋에서 치폐. * 호송차사원 마량첨사는 護送에 성실하지 않음. 감영에서 곤장 침. * 호송지방관 태안부사는 조세선 침몰이 장내에서 일어나 파출. * 差員의 領護와 원산의 逢點이 있었는데도, 空石이 많은 것은 의심스러움. 敗船의 色吏·沙格 등을 태안옥에 가두고 사실을 밝히게 함. * 진져낸 米는 完米 162석. 不完米 137석은 作完하면 76석, 作完縮米 61석·未拯米 24석·空石 722石 등 未拯米의 합계는 807석. * 완미 238석을 1석당 2냥 1전을 받은 499냥 및 劣米를 돈으로 상납.</p>
1868 ¹⁷⁴⁾	마량진 호송 장내	聖堂倉 조세선 이 호조에 남 부할 만경현 田 稅米	<p>* 전라도 성당창 조세선이 마량진 호송 경내에서 치폐. * 船人犯用米 3석 12두 1승 4홉과 만경현 用情米 1석을 호조에 남부. * 전체 未拯米 4석 12두 1승 4홉을, '色吏 1명, 沙工 1명, 格軍 13명' 등 15명에게 1명당 4두 8승 9작 4리씩 징수하여 상납.</p>
1872년 ¹⁷⁵⁾	마량진 호송 경내	합평현 대동선에 실은 米	<p>* 전라도 함평현 대동선이 마량진 호송 경내에서 치폐. * 호송지방관 마량첨사를 감영에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징계. * 裝載官 함평현감의 죄를 의금부가 禿處. 敗船 監色·沙格을 비인현 옥에 가두고 엄형으로 실정을 알아내고, 농간을 부리지 않은 것이 분명하면 原籍官으로 이송. 원적관은 未拯穀을 독촉하여 걷은 후 갑색·사격을 定配.</p>
1877년 ¹⁷⁶⁾	충청도	합열현 조세선 곡물	<p>* 호송차사원 마량첨사는 漕船 10척을 잘못 호송한 죄로 파출되고, 의금부에 잡혀갔다가 갑자기 關格症으로 사망. 죄를 더 이상 논하지 않음.</p>

170) 『日省錄』 순조 33년 4월 28일; 『備邊司臘錄』 순조 33년 10월 5일; 『承政院日記』 순조

즉 먼저 마량진 관련 조세선 致敗의 ‘왕대별 회수, 장소별 회수, 원인’ 및 실린 물건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조세선 치폐의 왕대별 회수는 ‘정조대 1회, 순조대 6회, 현종대 2회, 고종대 4회’로, 순조대가 6회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침몰 장소별 횟수는 ‘마량진 6회, 비인현 1회, 태안군 3회, 홍주목 1회, 모름 1회’였는데, 마량진이 6회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 홍주목 1회는 1844년으로 조세선이 2곳에서 치폐된 점이 주목되며, 모름 1회는 1877년으로 조세선 치폐에 대한 장계를 충청감사가 올렸다는 점에서 침몰 장소가 충청도인 것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세 번째로 조세선의 침몰 원인은 ‘바람, 비, 파도, 바위’ 등이었는데, 바람이 주된 원인이었다. 그밖에 過積·어두울 때 항해·조세선 무리에서 落後 등으로 침몰된 경우도 있었다. 네 번째로 조세선에 실린 물건은 米·太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統營이 京營에 납부할 加時木·槍柄木이나 부안현이 훈련도감에 납부할 箭竹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조세선 침몰 관련 마량진의 역할·처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조세선이 마량진 境內에서 치폐될 경우 호송지방관인 첨사와 指路護送을 맡은 監色(監官·色吏)은 성실히 호송하지 않은 죄로 처벌되었는데, 첨사가 호송차사원인 때에는 조세선이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침몰해도 벌을 받았다.¹⁷⁷⁾

33년 10월 5일(壬午).

171) 『日省錄』 현종 8년 11월 13일.

172) 『日省錄』 현종 10년 5월 27일.

173) 『承政院日記』 고종 4년 7월 2일(癸丑): 『日省錄』 고종 4년 7월 2일.

174) 『公清道庇仁縣馬梁鎮護送掌內致敗全羅道萬頃縣甲子條田稅米瑞山郡致敗米拯米區別分徵成冊』(奎 16965).

175) 『承政院日記』 고종 9년 12월 8일(戊午).

176) 『承政院日記』 고종 14년 8월 13일(乙未): 『承政院日記』 고종 14년 11월 4일(乙卯).

177) 물론 마량첨사는 조세선 호송은 아니지만 1784년 영운차사원으로써 영남 곡물 25,000석 을 호남 연안까지 잘 운반한 공으로 弦弓 1張을 상으로 받았는데(『備邊司賸錄』 정조 8년 윤3월 1일: 『承政院日記』 정조 8년 윤3월 1일(丙辰): 『日省錄』 정조 8년 윤3월 1일), 마량첨사는 1799년 충청도 진휼에 쓸 海西 곡물 2만 섬을 각 읍 地土船 46척과 안홍 대변선 2척으로 실어올 때(『日省錄』 정조 23년 1월 18일) 및 1821년 國葬·禮葬에 사용할 表石을 운반할 때[『(孝懿王后) 國葬都監儀軌』 순조 21년 4책 67면: 『(孝明世

실제로 호송지방관 마량첨사는 마량진 경내에서 조세선이 침몰한 1792년은 의금부로 잡혀가 심문을 받았고, 1810·1817·1833·1872년은 충청감영에서 곤장을 맞았다. 아울러 마량첨사가 호송차사원인 때에는 1872년 경내에서 조세선이 치 폐된 경우는 물론이고 1826·1842·1844·1867년에는 태안군·홍주목 등 경내가 아닌 곳에서 조세선이 침몰되었음에도 감영에서 곤장을 맞았으며, 1877년 호송 차사원이었던 마량첨사 박윤진은 파직된 후 의금부에 잡혀갔다가 關格症으로 죽었다. 그런데 마량진 경내에서 2척이 침몰된 1792년과 10척의 조세선을 잘못 호송한 1877년을 제외하면, 첨사는 파직보다는 대부분 감영에서 곤장을 맞았다. 이것은 1790년 조세선 침몰로 변장·수령이 자주 교체되어 백성·고을이 고통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호송에 마음을 쓰지 않은 堂下官은 巡營(監營)에서 곤장을 때리고 堂上·侍從 수령만 파직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¹⁷⁸⁾

아울러 마량진 호송감색도 조세선이 致敗되면 처벌을 받았다. 호송감색은 별도의 호송선을 마련하여 지로호송을 담당하였는데, 조세선이 침몰하면 1792·1810·1817·1820·1833년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감영에서 엄하게 조사를 받고 유배 등의 처벌을 받았다. 물론 별만 준 것은 아니다. 충청도 평신진의 경우 안홍진 포구로부터 경기 楓島까지 溝稅船을 호송한 格軍 14명에게는 1명당 紿代로 3냥을 준 다음 水營과 그리고 指路護送을 담당한 監色에게는 매달 粮米 2석을 12개월 동안 제공한 후 巡營과 會減하였다는 점에서,¹⁷⁹⁾ 마량진 호송감색에게도 조세선 지로호송의 댓가로 평신진처럼 양미가 지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마량진 境內 溝稅船을 護送하는 선박의 沙格(沙工·格軍) 등에게 粮米 및 紿代 명목으로 189냥이 제공되었다.¹⁸⁰⁾

이처럼 조세선 침몰과 관련하여 마량진 첨사와 호송감색이 처벌된 것을 통해,

子) 禮葬都監儀軌』 순조 30년 1책 125면]에도 영운차사원을 담당하였다.

178) 『承政院日記』 정조 14년 12월 9일(乙卯).

179) 『忠清道邑誌』 39책, 平薪鎮, 護漕(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7 : 충청도①』, 512면); 『湖西邑誌』 6책, 瑞山, 平薪鎮誌, 護漕(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8: 충청도②』, 286면).

180) 『湖西邑誌』 13책, 庶仁, 馬梁鎮誌與事例(한국학문현연구소편, 1984 『邑誌8 : 충청도②』, 616면).

마량진이 조세선 호송 임무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세선 치폐는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왔으므로 수군지휘관으로써 海防을 담당하는 첨사와 해로를 잘 아는 감색에게 조세선 호송을 담당시킨 다음, 조세선이 침몰하면 처벌함으로써 첨사·감색에게 최선을 다해 조세선을 호송하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로 마량진 첨사는 조세선 치폐 및 곡물을 건진 상황 등을 충청감사에게 傑呈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1792년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마량첨사 이문백은 조세선이 치폐된 상황에 대해 ‘윤4월 21일 날이 저물 때 戶曹에 납부할 米·太를 실은 경상도 좌조창 潛船 17척이 전라도 古群山을 출발하여 洪州 龍島 앞바다로 가던 중 바람이 크게 몰아쳐 22일 조선 1척이 마량진 烏力島 뒷바다에서 침몰하였고, 사격 17명은 汲水船을 타고 昌串의 內洋으로 표류해 왔으나 1명이 익사했으며, 치폐된 潛船 1척이 더 있다’라고 충청감사에게 첨정하였다.¹⁸¹⁾ 이어 마량첨사는 ‘2척이 치폐된 본진의 뒷바다에서 22일경 건져낸 쌀은 완전한 것과 완전하지 않은 것을 합쳐 47석이고, 태는 完과 不完을 합쳐 14석이며, 공석은 476立이다’라고 두 번째 첨정을 충청감사에게 올렸다.

이에 충청감사는 ‘첨정 내용, 곡식·익사자를 건질 것, 곡물을 건질 차사원 임명, 조세선 호송에 소홀한 藍色 처벌’ 등을 담은 장계를 올렸고, 추가로 ‘곡물을 건진 상황 및 치폐된 조세선이 소속된 고을과 字號 등 첨정 내용, 곡물을 적게 건진 읍·진의 首吏·首鄉에 대한 처벌’ 등을 기록한 장계를 올렸다. 충청감사의 장계에 따라 비변사는 조세선 침몰과 관련이 있는 영운차사원·호송차사원·호송지방관·호송감색·沙格 등의 처벌을 건의하였고, 국왕은 비변사 건의를 수용하면서 ‘장계 내용 등에 문제가 있는 충청감사는 파직 후 서용하지 말 것, 영운차사원은 곤장을 친 후 정배할 것, 익사자 1명은 흙전을 베풀 것’ 등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조세선의 곡물을 받을 예정이었던 호조도 국왕의 명령에 따라 장계를 올렸다. 즉 호조는 충청감사에게 關文을 보내 알아낸 ‘조세선 침몰 장소·수, 선적 및 건진 곡물 수, 익사자’ 등을 보고하면서 조세선 補修에 애쓰지 않은 수령을 벌주하고 하였다. 그 후에도 조세선 곡물을 받기로 된 부서는 조세선이 치폐되면 그 상황을 조사하여 啓를 올렸다.

181) 『日省錄』 정조 16년 윤4월 28일.

세 번째로 마량진은 익사자는 물론이고, 특히 침몰 조세선에 실린 곡물을 건지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러한 사실은 1792년 첨사가 조세선 침몰 상황을 감사에게 첩정하자 감사가 첨사에게 關文을 보내 익사자와 곡물을 건지는 것을 严飭한 것과 첨사가 감사에게 올린 두 번째 첩정에서 22일 당일에 完·不完을 합쳐 米 47석 및 太 14석을 건졌다고 보고한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정부는 조세선이 침몰하면 그 지역의 수령이나 邊將으로 하여금 최대한 빨리 많은 곡물을 건지게 하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려 하였고, 조세선 침몰 보고를 받은 수령·변장이 현장으로 직접 가서 곡물을 건지지 않으면 처벌을 하였다.¹⁸²⁾ 때문에 마량첨사도 인근의 선착이나 백성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곡물을 건지는 데에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침몰된 조세선에서 건지지 못한 곡물이 많았는데, 특히 조세선이 ‘外洋으로 향한 1814년 약 96.9%인 미 1,091석 및 태 115석, 날이 저물 때 출발한 1810년 약 96.7%인 미 1,312석, 2척이 침몰한 1792년 약 92.9%인 미·태 1,961석, 흘어져 항해 한 1867년 空石 722立을 포함하여 약 77.2%인 807석’을 못 건졌다.

이에 정부는 침몰 조세선의 藍色·沙格을 치폐 지역 관아의 옥에 가두고 엄한 형벌을 가하면서 조사하고, 못 건진 곡물을 그들에게서 징수함으로써 손실을 보충하려 하였다.¹⁸³⁾ 그런데 못 건진 米·太에는 가마니를 건졌어도 미·태가 모두 바다로 빠져 나간 空石은 물론이고, 일부가 유실되었거나 바닷물에 잠겨 불량해진 미·태를 제거하면서 부족해진 양을 채우기 위해 몇 개의 불완전한 가마니를 합쳐 완전한 가마니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소된 作完縮米·太도 포함되었다.¹⁸⁴⁾ 그 점은 1820년 실제로 못 건진 미 44석 2두 3승에 작완축미 77석과 공석 22立을 더한 143석 2두 3승을 未拯米로 포함시켜 관례대로 敗船의 色吏·沙格 등에

182) 『續大典』 권2, 戶典, 潛轉. 그런데 1814년의 경우 마량첨사가 조세선 침몰 장소를 찾지 못했으나 원래 정한 차사원이 아니므로 죄를 받지 않았다.

183) 『續大典』 권2, 戶典, 潛轉.

184) 『日省錄』 현종 8년 11월 13일 “作完縮及空石 例皆歸之未拯 船人犯用米 合爲四十二石 實未拯 米爲八百八十石三斗零 太爲六石四斗零 其中船人犯用米四十二石內 該邑用情條五石 則卽爲徵捧上納之意 移文該道道臣 三十七石 則亦爲徵捧於船人處 卽爲上納之意 關飭於泰安郡守鄭錫麟處 其外合米太八百四十四石八斗零 當依法分徵於藍色沙格等處”

게 分徵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1820 · 1826 · 1833 · 1842 · 1867년 등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더욱이 1842년 조세선 침몰 때 船人犯用米 42석을 제외한 미증미태만 조세선 색리 · 사격에게 分徵하라고 하였으나, 1868년의 경우 선인범용미 3석 12두 1승 4홉과 만경현 用情米 1석 등 未拯米 4석 12두 1승 4홉을 ‘만경현에 거주하는 色吏 郭采炯, 咸悅縣 성당창에 사는 沙工 安弼陽 및 格軍 蔡必五 · 梁春立 · 黃順執 · 崔成大 · 具萬西 · 李致先 · 具汝天 · 金鎮守 · 許辰石 · 柳達奉 · 安伊辰 · 林自玉 · 金千石’ 등 15명에게 1명당 4두 8승 9작 4리씩 징수한 것에서¹⁸⁵⁾ 선인범용미도 침몰 조세선의 색리 · 사격에게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789년 이후 拯劣米를 分給作錢함에 따라 1814 · 1817 · 1820 · 1826 · 1844년 등의 조세선 침몰 때 백성에게 나누어준 完米 · 太나 作完米 · 太의 곡물 값은, 穀主官(穀主邑)이 부담하는 劣米와 마찬가지로 가을에 錢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¹⁸⁶⁾ 물론 흥년이 심할 경우 1833년처럼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곡물 값을 금년은 정지하고 내년 가을에 거두도록 하였다. 아울러 1859년부터 時價發賣制가 시행된 후 1867년에는 태안 경내에서 침몰한 조세선에서 건진 완미 162석과 작완미 76석을 시가대로 1석당 2냥 1전에 팔은 후 총액 499냥을 상납하였고, 열미도 돈으로 납부하였다.¹⁸⁷⁾ 그런데 1867년 태안에서 건진 미는 1석당 판매 가격이 2냥 1전이라는 점에서, 1871년 전라도 옥구에서 침몰한 大同第五船에서 첫

185) 『公清道庇仁縣馬梁鎮護送掌內致敗全羅道萬頃縣甲子條田稅米瑞山郡致敗米拯米區別分徵成冊』(奎 16965)

186) 열미는 바닷물에 빠졌던 1석의 미를 말릴 때 줄어든 5두 8승 8홉을 의미한다(『大典續錄』 권2, 戶典, 潛轉). 열미는 拯米와 함께 敗船地方官에게 분급한 후 改色을 하다가 1663년부터 穀主官에게 改色하게 하여 침몰지역 주민 부담을 줄여주었으며, 1789년 이후 拯劣米를 分給作錢하고, 1859년부터 時價發賣制를 채택하였다(문광균, 2015 「조선후기 중열미 징수제도의 변화」『대동문화연구』 92).

187) 1871년 전라도 옥구에서 大同第五船이 침몰했을 때 穀主邑이 부담하는 劣米는 549석 8두 7승 6홉이고, 미 1석당 가격은 卸下全濕米 4냥 5전, 첫 번째로 건진 沦濕米 3냥 · 全況米 2냥 2전 5푼 · 腐碎米 1냥 7전 5푼, 두 번째로 건진 腐傷米 1냥 4전 3푼 · 1냥 5전 · 1냥 6전, 不完石米 7전 7푼이었다[『全羅道沃溝地方駕島致敗靈巖郡大同第五船拯米發賣及劣米區別成冊』(奎 17077)]. 따라서 『湖西邑誌』(1871)에서 평신진의 정상적인 米 1석의 代錢價 4냥 8전에 비해, 바닷물에 빠지지 않은 卸下全濕米의 가격은 4냥 5전으로 약간 낮으나 첫 번째 · 두 번째 건진 미의 가격은 매우 저렴함을 알 수 있다.

번째로 건진 全況米 2냥 2전 5푼과 유사하므로 全況米로 여겨진다.

한편 마량진은 1865~1866년 조세선 點護도 담당하였다. 1865년 공충감사 申愓의 건의로 마량진에서 삼남 稅船을 점검하는 절목을 만들고 點護處도 정함으로써, 조세선이 外洋으로 통과하는 것은 일절 금지시키고 전라도 古群山에서 곧 바로 內洋으로 항해하여 마량진에서 逢點을 받게 하였다.¹⁸⁸⁾ 조세선 점검은 1천 석을 초과한 곡물을 배에서 내리게 하여 過積으로 인한 치폐를 방지하고, 늦장 출발로 인하여 납부 기한을 맞추기 위해 비가 오거나 늦은 밤 등에 조세선이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침몰하는 폐단 등을 막기 위해서였다.¹⁸⁹⁾ 실제로 '1817년 米 1,565석을 실었던 조세선이 致敗하자 너무 곡물을 초과하여 실은 穀主官 해남현 감을 의금부에서 잡아가고, 1810년 조세선이 침몰하자 세곡을 10월에 포장한 裝載官 노성현감을 의금부에서 拿問하게 하고 過限·晚裝을 살피지 못한 충청감사를 推考하게 한 것'에서 정부가 과적·늦장 출발을 조세선 침몰 원인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조세선 점검에서는 감색·사격이 곡물을 횡령한 후 빙 가마니를 배에 실었는지도 살펴보았다. 마량진의 조세선 점호는 1866년에도 계속되었다. 그것은 '전라감사 趙在應이 潛船이 고군산·옥구에서 바람을 기다려 元山에 도착하게 하는 것이 水站으로 곧바로 가는 길인데, 마량은 바다 모퉁이 위험한 곳에 위치하였으며 항구가 좁고 바닥이 얕아 1~2척의 빙 배도 들어갈 수 없으므로 潛船의 점호를 예전처럼 거행하자'고 하자, 의정부가 조정의 명령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니 변경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고종이 따른 데에서 알 수 있다.¹⁹⁰⁾ 하지만 1867년 조세선이 치폐되었을 때 호송차사원의 領護와 元山의 逢點이 있었으므로 고의로 전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엄히 조사하자고 한 점을¹⁹¹⁾ 통해, 원산으로 조세선 봉점이 환원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마량진의 조세선 점호는 2년도 안되어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188) 『高宗實錄』 권2, 고종 2년 10월 丁酉: 『承政院日記』 고종 2년 10월 6일(丁酉); 『日省錄』 고종 2년 10월 6일; 『承政院日記』 고종 2년 11월 2일(癸亥); 『日省錄』 고종 2년 11월 2일.

189) 『備邊司瞻錄』 영조 25년 11월 6일.

190) 『備邊司瞻錄』 고종 3년 3월 9일: 『日省錄』 고종 3년 3월 9일.

191) 『承政院日記』 고종 4년 7월 2일(癸丑); 『日省錄』 고종 4년 7월 2일.

5. 맷음말

조선시대 충청도 마량진은 수군첨절제사진으로서, 조선전기부터 후기까지 존재하였다. 남포현 마량진은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진에서 수군첨절제사진이 되었는데, 충청우도 수군도만호가 1406년(태종 6) 왜적에게 조세선을 약탈당하여 곤장을 맞게 된 것이 확인되므로 마량진의 연원은 최소한 14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량진은 1457년(세조 3) 고만량만호진이 보령 도안무처치사영과 가깝다는 이유로 폐지되어 소속 진이 서천포만호진 1개로 축소되었으며, 1457년 확정된 육군의 진관편성을 따라 수군도 진관조직을 갖추고 1466년 관제개편도 시행됨에 따라 마량진은 수군첨절제사진이 되고 巨鎮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어 마량진은 1655년(효종 6) 11월 鎮의 위치가 비인현으로 移轉되었는데, 舊鎮이 藏船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청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충청도 수군 진을 정비하는 가운데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천 등을 경험한 마량진은 1895년 조선후기 지방의 육군·수군이 폐지될 때 함께 폐지되었다.

마량첨사의 성명은 2번 부임한 영조대 오도건을 비롯하여 154인이 확인된다. 마량첨사의 수는 재위기간이 길었던 영조대가 28인으로 가장 많았고, 재임 기간을 알 수 있는 139인 중 24개월 이상이 54인이었다. 마량첨사 중 52인은 교체사유가 확인되는데, ‘파출 45인, 천직 5인, 사망 2인’이었다. 파출의 경우 18인이 褒貶에서 中考 이하였고, 가령주구가 6인으로 두 번째였으며, 조세선 호송 잘못이 5인으로 세 번째였다. 그런데 마량첨사는 1865년부터 공충감영의 군관 중에서 自辟하였다. 때문에 瓜限도 900일에서 24개월로 바뀌고 辭朝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殿最는 종전처럼 帥臣이 주관하였다.

마량진 군병은 ‘세종대 선군 1,302명, 성종대 수군 1,120명, 고종대 수군 744명·신선군 82명·주사군 323명’이었다. 세종대에 비해 성종대 마량진의 수군 수가 적은 것은 漕運에 수군이 동원되던 관행을 고치기 위해 漕卒을 따로 설치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고종대는 수군·신선군·주사군의 합계가 1,149명이지만, 수군·신선군은 복무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전기 선군·수군처럼 海防 등을 담당하는 군병은 주사군 323명인데, 세종대 선군이나 성종대 수군의 수에 비해

너무 적었다. 그 이유는 수군 진은 물론이고 읍에도 주사군이 배치되어 주사군이 분산되었고, 주사군은 직업 군인처럼 계속 복무하였으므로 2교대로 운영되는 세종대·성종대보다 군병의 수가 적어도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전기 선군·수군은 휴식·유사시 많은 군병의 동원에 유리한 반면, 조선후기 주사군은 군사적 측면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이 돋보인다고 여겨진다.

마량진 公廨로는 내아·아사·관사·객사·진무청·군기고·사령청·군관청·육물고 등이 있었다. 마량진이 조선전기 남포현에 위치했을 때에는 1510년(중종 5) 돌로 쌓은 성이 존재했는데, 둘레는 1,371척이고 높이는 9척이며 성 안에 우물이 1개 있었다. 하지만 1655년 마량진이 비인현으로 옮겨진 후에는 성이 축조되지 않았는데, 재정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주요한 이유로 여겨진다.

마량진 전함은 ‘세종대 병선 16척·별선 2척·무군선 1척’ 등 19척, 성종대 대맹선 1척·중맹선 6척·소맹선 4척·무군소맹선 10척 등 21척, 영조대~고종대 전선 1척·방선 1척·병선 1척·사후선 3척 등 6척’이었다. 세종대 전함 19척 중 소형 전함인 병선이 16척으로 가장 많은 것은 왜구 침입을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서이며, 별선 2척도 도안무처치사진 追倭別猛船과 좌도도만호진 追倭別船의 명칭을 통해 왜구를 추격하여 拿捕·격파하기 위한 전함으로 보인다. 세종대에 비해 성종대는 별선 2척이 없는 대신 대맹선 1척과 무군선 9척이 증가하였으나, 영조대부터 고종대까지 마량진 전함 6척으로 세종대와 성종대에 비해 크게 축소되었다. 그것은 조선전기와 달리 임진왜란 이후에는 외적의 침략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수군 진은 물론이고 읍에도 전함이 배치되어 전함이 분산되었고, 전함의 선체가 커져 승선하는 군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마량진 재원은 수군전 1,488냥·결전 804냥·신선전 160냥·還米 8석·屯稅 약 7,167석 등이었는데, 수입 합계는 錢 2,452냥 및 米 약 15,167석 등이었다. 지출 중 마량진과 관련된 것은 ‘防軍 등 紿代 1,200냥, 僉使料 592냥, 마량진 경내 조세선 호송선의 沙格 등 粮米 및 급대 189냥, 전선·방선·병선 六物貿易條 177냥 6전, 藥丸代 상납 72냥, 海外 搜討할 때 藍色·沙格 등 紿代 42냥, 전선·방선·병선·사후선 등 정박처 매년 掘浦하는 비용 20냥’ 등이었고, 그 밖의 지출로는 해마다 水營에 납부하는 各樣補役條 134냥 4전 및 의정부에 납부하는 箭

竹刈取者 粮米 및 上送者 駄價로 25냥 등이 있었다. 따라서 지출의 합계는 2,461냥이므로 錢의 수입 총액 2,452냥보다 9냥이 많은데, 부족한 9냥은 屯稅나 還米의 이자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마량진은 왜적·황당선의 침입을 격퇴하여 沿海 주민의 생명·재산은 물론이고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때문에 그러한 임무를 소홀히 한 마량첨사는 처벌을 받았는데, 1419년(세종 1) 5월 마량첨사의 前身인 충청우도 수군도만호인 金成吉은 왜적이 비인현 도두음곳에 쳐들어왔을 때 폐했다고 참수를 당했다. 다음으로 마량진은 표류선·이양선의 감시·조사·보고도 담당하였다. 마량진 요망·후망감졸은 이양선의 출몰을 첨사에게 보고하였고, 첨사는 이양선에 직접 가서 문자로써 문정을 한 다음 그 내용을 충청도 감사·수사에게 첨정하였다. 아울러 표류선이 도착했을 때 첨사는 이양선이 도착했을 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람과 배를 동원하여 표류선을 마량진으로 견인한 후 표류민을 배에서 내리게 하고 머무를 곳과 음식 등을 제공하되, 마량진의 장교와 아전으로 하여금 표류민의 留宿處를 지키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표류민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표류민의 도망이나 인근 주민과의 싸움·거래 등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조세선을 호송하는 목표는 해적의 약탈로부터 곡물·선원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뱃길을 잘 인도하여 조세선이 침몰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1640년(인조 18) 비인현에서 서쪽으로 가던 漕船이 흥원곶 앞바다에서 황당선에게 군량을 모두 빼앗기자 마량첨사 김극겸은 파직되었다. 그런데 마량진의 조세선 호송에서도 특히 指路護送이 강조되었다. 마량첨사는 대체로 조세선 호송지방관이나 호송차사원의 임무를 맡았는데, 호송지방관일 경우에는 조세선이 관할 구역에서 致敗했을 때만 그리고 호송차사원일 경우에는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침몰해도 성실히 호송하지 않은 죄로 곤장 등 처벌을 받았다. 아울러 마량첨사는 조세선 치폐 및 곡물을 건진 상황 등을 충청감사에게 牒呈하였고, 익사자는 물론이고 침몰 조세선에 실린 곡물을 건지는 임무도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호송감색은 조세선에 승선하지 않고 별도의 선박에서 지로호송을 담당하였는데, 조세선이 침몰할 경우 감영에서 엄하게 조사를 받고 유

배 등의 처벌을 받았다.

한편 마량진은 조선전기에는 소근진과 더불어, 조선후기에는 소근진은 물론이고 안홍진·평신진과 함께 충청도 수군첨절제사진으로서 海防과 조세선 호송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조선전기에 마량진은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기능이 두드러졌는데, 마량진은 소근진에 비해 충청도 남쪽에서 위치했기 때문이다. 반면 조선후기에 황당선 침입을 방어하는 기능은 소근진·안홍진이 더 주목된다. 황당선은 주로 봄·여름에 고기잡이를 위해 황해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마량진에 비해 소근진·안홍진의 위치가 황당선이 황해도를 왕래하는 해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물론 효종대 이후 충청도 수군진의 정비는 청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이루어진 공통점이 있다. 즉 마량진의 경우 효종대에 ‘남포현 마량진 본진, 본진 앞의 섬, 비인현 도두음곶수’에 분산되었던 전선과 군병을 大洋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는 한 곳으로 집결시키기 위해 鎮의 위치가 비인현으로 옮겨졌다. 안홍진도 청의 침략 때 潮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빨리 출동할 수 있도록 효종대에 鎮의 위치를 안홍성 안에서 안홍성 건너편 섬으로 移轉하였고, 안홍성을 증축하여 유사시 江都를 돋기 위한 군향을 비축하였다. 더욱이 1705년(숙종 31) 평신진 前身인 항금진을 설치한 주요 목적으로 강도 방어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제어 : 마량진, 마량첨사, 주사군, 전함, 재정, 해방(海防), 호조(護漕)

투고일(2018. 2. 23), 심사시작일(2018. 3. 6), 심사완료일(2018. 3. 20)

〈Abstract〉

A Study on Maryang-jin in Chungcheong-do during
Joseon Dynasty

Seo Tae-won *

Maryang-jin(馬梁鎮) was Sugun-cheomjeoljesajin(水軍僉節制使鎮) at Chungcheong-do(忠淸道) during Joseon Dynasty. The number of Manho-jin(萬戶鎮) of Maryan-gjin was originally two, which were abolished and reduced to one Seocheon-po(舒川浦) Manho-jin in 1457(Sejo 3rd year), because Gomanryangmanho-jin(高巒梁萬戶鎮) was close to Doanmucheochisa-young(都按撫處置使營), and Maryan-gjin became Sugun-cheomjeoljesajin at Chungcheong-udo Sugundomanho-jin(水軍都萬戶鎮) along with the governmental reorganization in 1466. Later, the location of Maryang-jin was moved to Biyin-hyeon(庇仁縣) from Nampo-hyeon(藍浦縣) in 1655(Hyojong 6th year), which seemed to be a measure as the navy camp of Chungcheong-do was rearranged in preparation for the war against Qing(淸). In the process of such change, Maryang-jin was abolished as the provincial army · navy were abolished in 1895.

54 persons among 154 Maryang-cheomsa(馬梁僉使) were engaged over 24 months, however 45 persons were fired due to, ‘Popyeom(褒貶), corruption · misbehavior, mistake in tax vessel escort’. Maryang-jin armed forces were ‘1,302 Seon-gun(船軍) during Sejong period(世宗代), 1,120 Su-gun(水軍) during Seongjong period(成宗代), 744 Su-gun during Gojong period(高宗代) · 82 Sinseongun · 323 Jusa-gun(舟師軍)’. During Seongjong period, Jojol was installed separately to improve the custom of exploiting Su-gun for Joun(漕運), accordingly the number of Sugun decreased less than Sejong period, and the number of actual soldiers was only 323 Jusa-gun during Gojong period, since Sugun · Sinseon-gun(新選軍) were not in service. Because, during Gojong period, Jusa-gun were arranged also in Eub(邑), differently from Sejong · Seongjong period, and the same soldiers continued service instead of double shift.

There were Nae-a(內衙) · Asa(衙舍) · Gwansa(官舍) · Gaeksa(客舍) · Jinmu-cheong(鎮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Mokwon University.

撫廳) · Gungi-go(軍器庫) · Gungwan-cheog(軍官廳) at Maryang-jin Gonghae(公廨). However, since Maryang-jin was located in Biyin-hyeon in 1655, the castle was not constructed, seemed to be due to difficulty in securement of finance and manpower. The number of Maryang-jin warships were '19 during Sejong period, 21 during Seongjong, 6 during Youngjo(英祖) · Gojong'. In order to promptly repel the Japanese invasion, small warships were mainly utilized during Sejong period, and medium · small warships were mainly utilized during Seongjong. The number of warships during Youngjo · Gojong was 6, greatly reduced than Sejong · Seongjong, as the warships were arranged also in Eub in order to promptly deal with the invasion since Japanese invasions and the size of the vessels became bigger. Maryang-jin properties were Sugun-jeon(水軍錢) 1,488 nyang (兩) · Gyeoljeon(結錢) 804 nyang · Sinseon-jeon 160 nyang · Hwanmi(還米) 8 seok · Dunse(屯稅) about 7.167 seok(石), first of spending was the soldiers' salary, and Cheomsa's salary was the next.

Maryang-jin was in charge of the ocean defense such as protecting the coast residents' lives and properties as well as vessels by repelling the invasion of Japanese invaders · Hwangdangseon(荒唐船). Of course, if any mistake occurs in the process, Japanese invaders · Hwangdangseon were repelled by punishing the naval commander, promoting awareness. Maryang-jin monitored · investigated · reported drifting people(漂流民) · Yiyangseon(異樣船). Maryang-cheomsa reported Gamsa(監司) · Susa(水使) after investigating the drifting people · Yiyangseon after receiving the report of Yomang(瞭望) · Humang-gamjol(候望監卒), let the drifting people get off the ship and provided them with shelter and food, making Maryan-gin officer · Ajeon(衙前) keep watch on their shelter. Maryang-jin also escorted Jo-sun(漕船: tax ship). Maryang-cheomsa performed Hosong-jibanggwan or Hosong-chasawon(護送差使員), and reported Jo-sun sinking and the situation of saving the grains to Chungcheong-gamsa. Maryang-jin Hosong-gamsaek(護送監色) performed Jiro-hosong(指路護送) of Jo-sun, and if the Jo-sun sank, he was punished such as exile, etc. On the other hand, Maryang-jin defended Japanese invasion, since it was located in the far south of Chungcheong-do Suguncheomjeoljesa-jin.

Key Words : Maryang-jin(마량진), Maryang-cheomsa(마량첨사), Jusa-gun(舟師軍), Battleships, Financial sources, The ocean defense, Escort of Jo-sun(護漕)